

碩士學位請求論文

秋史 金正喜의 流配書簡 研究

指導教授 梁 淳 秘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奉 玉

1990年度

秋史 金正喜의 流配書簡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金 奉 玉

指導教授 梁 淳 珽

1990年 12月 日

金奉玉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0年 月 日



主審 _____ ㉞

副審 _____ ㉞

副審 _____ 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1
II. 時代的 背景과 秋史의 生涯	6
III. 秋史의 流配書簡 分析	11
1. 情動的 位相	14
1) 兄弟에 대한 情動	15
2) 아내와 자식에 대한 情動	21
2. 志向的 位相	32
1) 집안에 대한 志向	32
2) 社會的 志向	38
3) 理性的 志向	48
IV. 結 論	56
參考文獻	59
Abstract	62



I. 序 論

秋史 金正喜(1786-1856)에 대한 관심은 그가 이루어 놓은 학문적 성과만큼이나 다양하다. 秋史體를 완성한 書藝의 대가로서, 北漢山巡狩碑를 고증한 金石·考證學者로서, 조선조 후기에 만개한 실학운동의 實事求是學의 대가로서의 면모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추사에 대한 언급들을 일별해 보면, 추사를 단지 경이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을 뿐, 그의 본격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추사가 단순한 서예가나 금석학자, 혹은 실학운동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변하는 조선조 후기를 살아가면서 설득력을 잃어버린 성리학적 세계관과 학문을 극복하기 위하여 淸朝의 새 학풍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선각자였으며, 經學·詩論·書論·畫論·佛敎 등 당시의 거의 모든 학문·예술 분야에 대해 일가를 이룬 지성인이면서 조선조 후기 위항시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문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추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조 후기의 실학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부터라고 할 것이다. 실학사상 가운데, 경세치용학파나 이용후생학파의 학문적 태도는 모두 民生과 관련한 정치적 과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학파의 사상의 핵심은 극심한 당쟁과 공리공론의 병폐에서 벗어나, 實用과 實利를 추구함으로써 民生을 구제하고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추사의 '實事求是說'은 학문과 예술 그 자체, 즉 문화 현상 그 자체를 대하는 態度와 指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추사

1) 김혜숙, 「김정희의 시론 연구」, 「울산어문론집」 5집.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9. p.200.

의 '실사구시'가 실용과 실리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즉흥적이며 고식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공을 확장한 문화의 전영역을 향하여 학문적 관심을 개방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며 확실한 실용과 실리의 기반, 즉 正德 利用 厚生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실학자로서의 추사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음에 비하여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와서야 몇몇 선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²⁾ 그 가운데 추사

2) 문학론에 관한 것으로는,

한철희, 「완당 김정희 예술고」,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68.

박경선, 「완당 김정희 문학론」,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80.

호승희, 「추사 김정희의 문학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1983.

김혜숙, 註1) 참조.

등이 있으며, 유배문학을 다룬 것으로는,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82.

——, 「추사의 도망시와 제문고」,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1980.

——, 「추사의 유배한시고」, 「논문집」 14, 제주대학교, 1982.

——, 「유배인이 제주에 끼친 영향」, 「제주도」 75호, 1978.

——, 「추사의 세한도 제문고」, 「제주도」, 76호, 1979.

——, 「추사의 유배서한고」, 「아카데미논총」 7집, 1980.

——,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연간고」, 「어문연구」 27호, 1980.

——, 「추사의 제주유배연간 연구」, 「논문집」 15집, 제주대학교, 1983.

——, 「추사의 제주유배한시 연구」, 「논문집」 16집, 제주대학교, 1983.

——, 「추사의 문학 세계: 제주도 유배를 중심으로」, 「제주도」 80호, 1986.

——, 「문학사회학적 시각에서의 유배문학고」, 「김기동박사회갑기념논총」, 1986.

——,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백록어문」 2, 제주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87.

이 있다. 이 외에 추사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황의돈, 「김정희」, 「조선명인전」, 조선일보사, 1939.

의 인간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김일근 박사에 의해 추사의 친필 한글서간이 발굴·정리되면서 그 논의가 있어 왔다.³⁾ 그러한 김일근 박사의 추사 한글서간연구의 업적에 크게 힘입어, 본 연구에서는 추사의 한문서간과 한글서간을 통한 그의 인간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려고 한다.

서간을 통하여 추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밝히는 것은, 서간이 문학의 모태라고 보고 있듯이, 문학 세계에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학문과 예술을 경이적인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것은, 그 밀바탕에 그의 참다운 인간상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에 있다고 하겠다.

근래에 이르기까지 추사에 대한 국문학사에서의 논의는 지극히 단편적으로 언급

전해중, 「김정회」, 「한국의 인간상」, 신구문화사, 1965.

김약술, 「김정회」, 「인물한국사」, 박우사, 1965.

김영호, 「추사 김정회」, 「문학사상」 50호, 1976.

최완수, 「김추사평전」, 「신동아」, 1976.1.

허영환, 「영원한 묵향」, 능력개발사, 1978.

최완수, 「추사실기—그의 파탄의 생애와 예술」, 「한국의 미」 17, 중앙일보사, 1985.

문순태, 「추사 김정회」, 「유배지」, 어문각, 1983.

문기선, 「추사 명품의 정신적 배경」, 「민족지성」, 1986.9.

윤석산, 「세한도의 산실을 찾아서」, 「민족지성」, 1986.9.

강주진, 「벽파가문 출생의 추사 김정회」, 「탐라문화」 6집, 1987.

양순필, 양진건, 「추사의 제주교학 활동 연구」, 「탐라문화」 6집, 1987.

3) 김일근, 「추사 김정회의 인간면의 고찰」, 「성곡논총」 4집, 1983.

——, 「연간에 투영된 추사의 인간론」, 「탐라문화」 6집, 1987.

——, 「편지로 진단한 인간 추사」, 「전국문화원」 10·11합집, 1986.

——, 「추사 김정회의 서간문 연구」, 「김원거악사회갑기념논총」 1988.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한국고전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추사의 서간문에 대한 연구는 추사의 국문학상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의는 추사가 1840년 9월에 윤상도옥사의 재론으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쓴 서간들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고찰하여, 추사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가론적 차원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



4)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5. p.527. p.534.

“悼亡詩”, “七夕”, “端午”를 소개.

신위, 이만우, 권용정과 더불어 한문학 후사가라 일컬음.

문선규, 「한국한문학」, 이우출판사, 1979. pp.250~51.

悼亡詩를 소개.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5. pp.220-22.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됨.

이를 위한 자료는 「阮堂先生全集」에 수록된 한문서간 27통⁵⁾과 한글서간 21통⁶⁾을 대상으로 하며, 그 연구 방법은 Busemann의 심리적 방법을 원용하고, 서간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5) 가족에게 보낸 것은 21통으로, 命喜에게 5통, 相喜에게 9통, 商懋에게 4통, 商佑에게 1통, 從兄 教喜에게 2통이며, 興宜大院君에게는 3통, 弟子 申觀浩에게 3통 등을 합하여 27통이 된다.

6) 김일근, 「언간의 연구」 중정판, 건국대출판부, 1988. pp.334-36.

40통이 발굴·정리되었으나 필자가 접한 것은 39통이다. 이 중 제19신부터 33통까지의 15통과 그 순서가 補遺된 6통을 합한 21통이 제주 유배시에 쓴 것이며, 이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件 名	發 信 處 · 日 字	受 信 處	初版<諺簡의 研究>	備 考
제19신	濟州 庚子 10.5(?)	禮山 夫人	제13신	1840, 55세
제20신	동상 辛丑 潤3. 초(?)	동상	제15신	1841, 56세
제21신	동상 潤3.20	동상	제14신	동상
제22신	동상 4.20	동상	제16신	동상
제23신	동상 6.22	동상		동상
제24신	동상 7.12	동상		동상
제25신	동상 10.1	동상	제17신	동상
제26신	동상 壬寅 1.10	동상		1842, 57세
제27신	동상 3.4	동상	제18신	동상
제28신	동상 4.9	동상	제19신	동상
제29신	동상 10.3	동상		동상
제30신	동상 11.14	동상	제20신	동상
제31신	동상 11.18	동상	제21신	동상
제32신	동상 癸卯 10.10	禮山 子婦		1843, 58세
제33신	동상 甲辰 3.6	동상		1844, 59세
補遺 제1신	제19신의 연속지가 아니면 그 직후의 별개 편지로 추정			
補遺 제2신	제24신에 동봉한 협서로 추정			
補遺 제3신	제25신에 동봉한 협서로 추정			
補遺 제4신	제27신에 동봉한 협서로 추정			
補遺 제5신	제28신의 협서가 아니면 그 직전의 별개 편지로 추정			
補遺 제6신	특정 편지와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내용			

Ⅱ. 時代的 背景과 秋史의 生涯

추사 김정희는 1840(헌종 6)년 9월에 尹尚度獄事의 재론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현에서 9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그가 유배 당하게 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영조 후기에 들어서면서 戚族家門間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시작되어 척족세도라는 기형적 족벌정치의 시대가 전개되었다.¹⁾ 선초의 지도이념인 성리학은 명목상으로만 남아 현실과는 유리되어 학문 자체가 公論化되었으며, 禮論은 형식만 남아서 虛禮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士類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반성과 비판의 기운이 높아가기 시작하였는데, 이른바 실학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집권층의 일부 참신한 자제간에도 성리학 자체에 대한 의의를 품고, 청나라에서 일어난 고증학을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회개혁을 시도하려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이른바 北學派인데 국정쇄신을 꿈꾸던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의 후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갔다. 한편,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英祖의 뒤를 이은 정조의 蕩平策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문세가들 사이의 정치적 세력 다툼이 사도세자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즉, 時·僻派의 당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억울했고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일파이고,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파이다.²⁾ 시파에는 南人과 小論이 많았고, 벽파는 老論이 다수를 차지하였다.³⁾ 이처럼 시·벽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

1) 이종항, 「한국정치사」, 박영사, 1963. p.330.

2)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70. p.369.

3) 성낙훈, 「한국당쟁사」, 「한국문화사대계」Ⅱ(上),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5. p.382.

기에 추사의 가문은 벽파에 속했는데,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그가 유배당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다.

추사의 7대조 홍육이 소현세자의 嬪인 강씨의 옥사에 적언한 탓으로 효종의 鞫問을 받다가 杖殺됨으로써 명신이 된 이래 추사의 가계는 훈척가문으로 등장하였다. 그의 고조 홍경은 영조 때 영의정에 이르러 그 후손들도 권귀를 누리게 되었다. 즉, 증조 한신이 영조의 장녀인 화순옹주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고 月城慰에 피봉된 것이다. 조부 이주도 의정부의 우참찬에 이르렀다.

그리고, 7대조 홍육의 자손으로 추사의 조부와 10촌 형제간인 정순왕후 김씨가 영조의 계비가 됨으로써 추사의 집안은 내외로 중복된 宗戚家門이 되었다. 그런데, 추사의 동종인 정순왕후의 집안은 시·벽의 당쟁에 벽파의 중심으로 진퇴를 거듭한다. 추사가 출생하던 1786(정조 10)년에 정순왕후의 오라비이며, 벽파의 수장인 김구주가 유배지에서 죽으면서 추사의 가계는 나락에 빠졌으나, 순조 초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다시 세도를 잡는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薨去를 계기로 순조의 처가이며 시파의 중심인 척족 안동김씨에 의해서 철저한 숙청을 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사의 집안은 정순왕후의 친정가문이긴 하나, 시·벽의 당쟁에 초연했고 왕가의 외손이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익종의 대리청정을 계기로 풍양조씨가 세도를 잡으면서 추사 집안이 가깝게 된 것이 빌미가 되어 익종 사후에 다시 세도를 잡은 안동김씨의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추사의 생부 노경은 박종훈, 신위 등을 무고했다는 운상도옥사의 배후 조종 혐의와 익종의 대리청정시에 권신 김로에게 아부하고, 익종 국혼시에 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1830(순조 30)년 10월에 고금도에 유배된다.

이렇게 추사 집안이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자 추사는 두 차례 상소를 올리고 순조의 배려로 3년만에 생부 노경이 석방된다. 이어 노경은 판의금리로 복직되고, 추사도 병조참판, 성균관대사성에 오르는 등 다시 권귀를 누리게 된다. 순조가 승하하고 헌종이 즉위하면서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그러자 안동김씨에서는 撒籜 후에 헌종의 외가인 풍양조씨에게 세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 하여 대사헌 김

홍근이 직접 나서서 10년 전의 윤상도옥사를 재론하여, 노경의 관직을 追奪하고⁴⁾ 추사를 사지로 몰아 넣는다.

곧, 시·벽파의 당쟁에서 벽파로 몰린 것이다. 그러나, 풍양조씨의 수장이며, 同榜 친구인 조인영의 도움으로 추사는 겨우 구명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圍離安置되어 9년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⁵⁾

위리안치란 죄인을 적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죄인을 유폐시키는 형벌로, 중죄인이나 당쟁을 통한 정치범에게 내리는 것이다. 이런 유형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연안의 도서 지역과 원악지 제주도에 안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조의 당쟁으로 인하여 유배는 정치적 유배자의 경우 絶島安置 등이 지배적이었다.⁶⁾ 추사가 이러한 위리안치형을 받은 것은 그만큼 추사를 중죄인 시 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추사는 제주에서 9년동안 유배생활을 겪고 1848(헌종 14)년에 석방되어 그 이듬해에 귀경한다. 그러나, 시·벽파의 당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철종이 즉위 하면서 득세한 안동김씨는 반대파를 숙청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反壯金派의 우두머리인 권돈인과의 眞宗祧禮의 是非를 일으켜 권돈인을 付處에 처하고, 추사 역시 권돈인의 배후조종 혐의를 씌워 다시 복청으로 유배시키면서 그의 동생들 역시 고향으로 내쫓는다.⁷⁾

이처럼 추사가 살았던 시대는 권문세가들 간의 세력 다툼이 극에 이른 시대여서 추사도 여기에 휩쓸려 한 때는 영달과 권귀를 누리기도 하고, 절해고도와 극변에서

4) 「憲宗實錄」 卷七, 6年 庚子 8月 庚子條.

“再論魯敬事施以追奪之典”

5) 「憲宗實錄」 卷七, 6年 庚子 9月 辛卯條.

“實是公平明正之論 其在從疑義 合有減死之典 鞫囚罪人正喜大靜縣 圍籬安置

6)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p.20.

7) 「哲宗實錄」 卷三, 2年 辛亥 2月 丙午.

“金正喜事爲之其甚惜(중략)北靑府遠竄 金命喜金相喜放逐鄉里”

의 유배생활이라는 곤궁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기도 하였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생애를 年記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786(정조 10)년 : 6월 3일에 충청도 예산(現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용산 월궁)에서, 이조판서 酉堂 金魯敬과 杞溪俞氏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나, 백부인 예조참판 魯永의 養嗣가 되어 月城慰의 奉祀孫이 된다. 字는 元春, 號는 秋史, 阮堂, 禮堂 등 무려 200여 가지나 사용했으며, 일반인에게는 추사, 완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출생에 얽힌 전설은 「阮堂先生全集」〈阮堂金公小傳〉에 보이는데,⁸⁾ 아마 그의 비범한 재능때문에 생긴 것이라 짐작된다.

1800(동왕 24)년 : 6세 때 써 붙인 入春帖이 인연이 되어 박제가의 지도를 받는다.

1809(순조 9)년 : 생원시에 급제. 이 해 10월에 冬至兼謝恩正使 判中樞 박종래, 副使 吏曹判書 김노경 등의 일행을 수행하여 燕行의 꿈을 실현하였다. 이듬해 연경에서 翁方綱과 阮元 二經師 등 청의 대학자들과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⁹⁾ 이외에 옹방강의 아들 옹수배, 옹수곤 및 조강, 오승량 등과 교류하여 학문과 예술의 폭을 넓혔으며, 옹방강으로부터 '海東 第一의 通儒'라는 찬사를 받는다.

1816(동왕 16)년 : 김교연과 함께 북한산순수비를 발견·고증하고, 실사구시설을 발표했다.

1819(동왕 19)년 :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 때에 순조는 월성위의 봉사손이 급제한 것을 기뻐하여 賜藥을 내리고, 승지를 보내어 월성위의 내외묘에 제사를 올리도록 한다. 이 후, 규장각시제, 충청우도암행어사, 내각검교대교경시강원보덕, 병조참판 등의 벼슬에 오른다. 그런데, 암행어사시에 김우명을 파직시켰는데, 이것이 후에 추사 부자가 유배당하는 화근이 된다.¹⁰⁾

8) 「阮堂先生全集」 「阮堂金公小全」

“金公正喜 字元春 號阮堂 又號秋史 慶州人也 母俞氏夫人 懷娠二十四月而生”

9) 藤塚隣, 「金秋史의 入燕と 翁·阮 二經師」, 「東方文化史叢考」, 京城帝大文學會編, 1935. pp.262-63.

10) 姜周鎭,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 「耽羅文化」 6, 1987. pp.42-52.

1830(동왕 30)년 : 윤상도목사가 일어나 阿附全權, 狙戲國婚 등의 죄목으로 생부 노경이 고금도에 유배되며, 추사는 1832년에 두 차례에 걸쳐 鳴冤疏를 올려 이듬해 생부의 방석을 보게 된다.

1837(헌종 3)년 : 생부 노경의 상을 당한다.

1840(동왕)년 : 윤상도목사가 재론되어 윤상도 부자는 능지처참 당하고, 생부 노경은 추삭되며, 추사 자신은 조인영의 도움으로 감사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된다.

1842(동왕 8)년 : 재취부인 禮安李氏의 상을 당하며, 1844년에 '歲寒圖'를 완성한다.

1848(동왕 14)년 : 유배에서 방석되어 이듬해에 귀경하였다.

1851(철종 2)년 : 禮論是非로 말미암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방석되었다. 그 이후로 생부 노경의 묘가 있는 과천에서 칩거하였다.

1856년(동왕 7) : 71세의 일기로 파란의 일생을 끝마쳤다.



Ⅲ. 秋史의 流配書簡 分析

추사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고찰은 그의 한글서간을 발굴·정리한 김일근 교수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¹⁾ 그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추사의 서간을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서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이유를 <한문서간보다도 한글서간이 더 韓國人의 内面生活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文字的 機能面에 있는 것>²⁾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추사의 한문서간을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한문서간에서도 추사는 충분히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한글·한문서간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추사의 서간 중 제주 유배서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원악지 제주에의 유배라는 극한적 상황으로 인해 그는, 그를 둘러싼 인간 관계를 새롭고 깊은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즉, 수륙 2천리를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이 그로 하여금 더욱 폭진한 인간적 정리를 드러낼 기회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사는 전 생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써서 마치고 서간을 쓰기 위해 일생을 보냈다고 할 만큼 많은 양의 서간을 남겼다³⁾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서간이 많다는 것은 그의 서간이 다른 이의 경우보다 특별히 많이 남아 전해지는 것일 뿐이며, 또한 문집에서 서간의 비중이 큰 것은 비록 그가 젊은 시절에 쓴 글들은 태워버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격 文章, 詩文의 기록이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집인 『阮堂先生全集』의 편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註 I.3) 참조.

2) 김일근, 「추사 김정희의 인간면의 고찰」, p.101.

3) 김일근, 「언간에 투영된 추사의 인간론」, p.25.

卷一 攷(8)⁴⁾

卷二 疏(6), 書牘(48)

卷三 書牘(35)

卷四 書牘(26)

卷五 書牘(75)

卷六 序, 記(3), 題跋(43)

卷七 筆(4), 銘(4), 頌(4), 箴(3), 上樑文(2), 祭文(4), 墓表(21), 雜著(25)

卷八 雜識

卷九 詩

卷十 詩(563)⁵⁾

이와 같이 書牘이 184편이며, 卷七의 雜著중 25편이 사실상 서독이고 보면 209편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글서간 40통이 발굴된 것을 합하면 249편이 되는 셈이다. 이로 보면 추사는 시를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서간을 많이 썼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사가 이처럼 비교적 많은 양의 서간을 남겼다는 것은, 그가 서간에 대해서 남과는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추사 서간의 봉투의 封印으로 쓰인 “思無邪”란 말이 될 것이다. 思無邪란 말은 孔子의 말로서, 시경에 실린 시에 대해서 <시 삼백 수는 한 마디로 말하여, 생각함에 사악한 것이 깃들지 않는다>⁶⁾라는 어구에서 생긴 것이다. 물론, 思無邪에 대한 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시도될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시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시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그것이다. 이 중 후자의 것을 따르면, 시는 인간의 참다운 진실과 곡진한 인정 등 변하지 않는 곧은 성정이 표현된 것이라는 뜻이

4) ()안의 數字는 篇數 표시임.

5) 卷九, 十을 합한 數字이며, 이 중 3首는 타인의 것으로 판명됨.

호승희, 「추사 김정희의 문학 연구」 참조.

6) 「論語」爲政. “詩三百一言而蔽之曰思無邪”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사가 봉인으로 思無邪란 말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서간의 진실함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 바로 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추사는 봉인을 思無邪로 했으며,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서간을 남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추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서간은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人間性이란 인간이 가지는 본질, 인간이 인간다움을 말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떠한가 마땅한가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⁷⁾ 특히 유배 생활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폐쇄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직면하는 생활이므로 人間面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Busemann의 情動과 志向의 位相 交替의 理論⁸⁾에 따라 추사의 유배서간을 情動的 位相(emotional phase)과 志向의 位相(intentionate phase)으로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심층심리학적 가설에 인간은 성숙과 환경에 따라 정동적 위상과 그 교체로 지향적 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Busemann에 의하면 위상이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정동적 위상은 성숙에 따른 발달의 규정이 우세하고 지향적 위상은 환경 경험의 축적 등이 우세하다. 그리고 정동적 위상(A)과 지향적 위상(B)과는 각각 인격의 하층과 상층에 관계하여 하층과 상층이 교체함에 따라 내부에 긴장을 하게되는 인간적 인격(in sich so spannungshafte menschliche personlichkeit)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 위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7) 임석진 외, 『哲學事典』, 중원문화, 1987. p.557.

8) Adolf Busemann, 『Krisenjahre im Ablauf der Menschlichen Jugend』 재인용, 森昭, 『教育人間學』, 黎明書房, 1968. pp.336-37.

位相 A 情動的位相	情緒性 表現 知覺 言語 社會性 反省 道德性 興味 健康 思考 運動機制 全體的態度	情動성이 높고 激情이 頻發 表現生活이 강하고 表情이 過度함 瘦身型的 主觀的인 解釋과 全體的 知覺 풍부한 表現, 動詞 사용이 많고 饒舌的 分離的 傾向 非社交化가 우세, 社會的 상극 反省的 傾向 自己意識과 自己感情이 강함 道德的 인간다움이 崩壞, 社會的 道德과의 相剋 犯罪的 傾向이 강함 社會的, 政治的, 倫理的, 藝術的, 宗教的인 것의 興味 노이로제나 精神病 發病 飛躍的 空想, 幻想 運動성이 강하고 調節에 障礙 擴大的, 征服的, 攻擊的, 突發的, 衝動的, 非暗示的
位相 B 志向的位相	情緒性 表現 知覺 言語 社會性 反省 道德性 興味 健康 思考 運動機制 全體的態度	情動성이 약하고 感情이 平靜 節制있는 表現 生活, 모양과 움직임이 平衡 肥滿型的 即物的인 解釋과 分節的 知覺 보다 敘述的, 形容詞 사용이 많고 即事的 樣式 結合的 傾向, 社交化的 傾向, 이웃과의 조화 環境 世界에의 轉向, 임퍼스널한 即物的 態度 道德的 인간다움, 도덕적 品性的 확립 事象科學, 算數, 技術에의 흥미 노이로제의 發病이 없고, 心的 健康的 안정 連關的 現實에 가까운 판단, 리얼리즘적 경향이 강함 運動성이 약하고 조정된 全體 運動 保守的, 保存的, 建設的, 規則的, 理性的, 批判的

위의 정동과 지향의 위상 교체 중에서 형제, 그리고 아내와 자식에 관해서는 정동적 위상으로 적용시키고, 집안에 대한 종손, 그리고 선비와 스승에 관해서는 지향적 위상으로 적용시켜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1. 情動的 位相

1) 兄弟에 대한 情動

유배 생활에 직면한 추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절망, 고독에 젖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의 變身은 저절로 환경에 따른 심리 현상으로 분리적 경향과 공상에 젖게 되어 情動性이 높아지면서 형제 및 일가붙이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나타난다.

추사의 형제에 대한 관심은 유별난 데가 있다. 둘째 아우 명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한문서간이 있다.

“이러한 때에 모두 별일 없고 사촌 형님께서는 기운이 또한 안녕하시며, 서울과 시골의 모든 형편이 한가지로 평상대로 잘되어 가고, 여러 누이들과 서모께서도 모두 잘 계시는가. 자네와 막내 아우의 물골이 시키뎡고 삐쩍 말랐었기에 꼭 병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니, 간혹 억지로라도 밥을 더 먹도록 노력하고 약을 쓰도록 노력하여, 이 바다 밖에서 한마음으로 애태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하기를 마음 속으로 천만 번 기도하고 있네. 막내 아우가 며칠 사이에 묘막에 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틈을 내어 모일 수 있었는가. 보면 끝이 없고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며, 바다 끝은 하늘에 맞닿아 아득하니 아마 서로 연락할 수가 없을 것 같네.”⁹⁾

위 글은 추사가 제주에 유배된 후 처음으로 보낸 서간이다. 유배 당할 때의 형제들의 정경을 생각하며, 섭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 집안의 중손으로 家間事의 책임을 맡던 추사가 유배된 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從兄 教喜, 서울에 있는 아우들과 고향으로 슬

9) 『阮堂先生全集』卷二, 「與舍仲 命喜 (一)」.

際此 渾履無損 從氏氣度 亦萬安 京鄉諸狀 一以平善 諸姊妹與庶母 俱安好. 仲季形貌 蠟黑瘦削 必有生病之慮 間或有勝而努力加飡 努力試藥 使此海外一念懸懸者 得以少紓 千萬心祝. 季行擬於間來 會楸舍云矣 果能抽暇團治耶. 目窮魂斷 海天茫茫 若不可以梯接也.

(우리말로 옮긴 것은 최완수의 번역을 따랐음.)

최완수 역, 『추사집』, 현암사, 1976. 참조.

거해 간 자신의 식솔, 서모와 누이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즉, <이 바다 밖에서 한마음으로 애태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이라도 떨 수 있게 하기를 마음 속으로 천 만번 기도하고 있다>고 한 대목에서 추상의 정동적 위상을 읽을 수가 있다. 특히, 두 아우 命喜와 相喜의 상해 있는 모습을 염려하는 데서 그것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추사 자신은 <보면 끝이 없고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며, 바다 끝은 하늘에 맞닿아 아득>한 곳에 있다고 과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그가 유배라는 격리된 상황에서 연유하는 分離的 傾向과 社會的 相靨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들에 대한 염려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명희의 병에 대한 걱정을 담은 다음과 같은 서간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런데, 손발이 찬 병의 증세가 끝내 쾌히 떨어지지 않는다 하니 매우 걱정이 되네. 복용하던 약과 음식을 한 번 더 전의 처방대로 계속해서 시험하여 상태가 다시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시게. 木氣(春)가 왕성한 때에는 더욱 마땅히 조심하여야 하니, 다시 더 더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좋아질 것일세. 먹고 마시는 것과 자고 깨는 것이 모두 편안한가. 멀리 밖에서 그리워 애태우는 마음은 한 시각을 떠나지 않고 치달리고 있을 뿐이리세. 이달 들어서면서부터 때없이 슬피되거나 크게 생각하고 참고 있네.”¹⁰⁾



아우의 건강에 대해 절기가 봄이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하며, 약과 음식을 계속하여 복용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당부 속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덧붙이고 있으며, 자신이 처지를 참고 견디고 있다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10) 「全集」卷二, 「與舍仲 命喜 (三)」.

此春季番風豈佳 邇來渾履一安 仲節亦有進境 而冷痺之症 終不快祛 是心悶然. 所服藥餌 一次前方連試 而見狀復何如. 木旺之時 尤當加慎 能無損 連作益勝. 飲啖與寢眠 俱安好耶. 遠外憧憧懸念 無以一刻暫馳. 自入此月 攬時慟廓 想勻之.

“앞서 본주 관청 공문편에 글을 보냈는데 과연 언제 도착되었던가. 시절이 가을이니 자네 환갑이 돌아왔네 그려. 우리 모두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어찌 죽히 보통으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며 드날리겠는가. 또 하물며 이런 때를 당하여서랴! 다만 막내 아우가 棠棣의 잔치와 伐木의 술을 차려 오래 사는 늙은이들을 먹이고 큰 술잔으로 축하하리니 또한 어찌 그 정의를 막겠는가. 역시 구부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이 바다 밖은 돌아보니 아득하여 서로 오가지 못할 듯하니 문득 사무쳐 오는 정리가 어떨겠는가. 혹시 葉莢가 한가지 부족한 것으로써 집안에서 즐겁게 모여 노는데 흠이나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 또한 거듭 내 처지를 생각한다면 天涯가 한 집안이니 이 몸이 날마다 같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만 원하는 것은 우리 형제가 화목하여 덕을 쌓으며 오래 사는 것뿐인데, 어찌 영원토록 끝없이 누릴 수야 있겠는가. 길한 일에는 상서로움이 있기 마련이니 역시 이에 조짐이 나타나는 것뿐인가 보네.”¹¹⁾

“비록 이곳이 험하고 곤궁하게 막히었다 하나 역시 聖上의 德化가 태양처럼 미치는 데서 빠지지는 않으리니 가만히 마음 속으로 축원하는 것은 거듭 식구끼리 모이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소서 하는 것뿐일세. 둘째 아우의 환갑이 또한 이번 에 돌아올 터인데, 머리 센 형제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을까.”¹²⁾

첫째 글은 명희에게, 두 번째 글은 상희에게 쓴 것으로, 명희의 환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은 수륙 2천리 밖에 처해 있으면서 아우의 환갑을 맞은 데 대한

11) 「全集」卷二, 「與舍季 命喜 (六)」.

前此州便書 果於何時抵達耶. 序屬三秋 仲之壽甲載屈. 吾輩孤露之餘 何足以尋常 喜慶舉揚. 又況此時耶. 但季方棠棣之醴 伐木之醞 阿麟眉壽之介 大斗之祝 又何以遺其情也. 亦有所俯以就之. 願此海外 漠然無若與之相關涉者 抑何情理. 無或以茱萸少一有所致欠於家室歡洽. 亦反復爲我地 天涯一室 何異乎此身之 日左右. 惟願宜兄宜弟 令德壽 豈永享無疆. 吉事有詳 亦兆於是耳.

12)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 (六)」.

雖此坎險困阨 亦不外於光天化日之中 默禱暗祝 另有雙攢之私.
仲甲又此際回 白首弟兄 可得歡聚歟.

기쁨을 <우리들이 모두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어찌 족히 보통으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며 드날리겠는가>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갑연을 막내가 잘 차려 축하할 것이니 거절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며, 자신이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王維의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의 詩句를 빌어 나타내면서도 그에 패념치 말 것을 말한다.

명희의 회갑을 축하하는 마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글에서도 <둘째 아우는 회갑 노인이 되었으니, 쇠와 돌처럼 오래 살고 수족이 편안하며 튼튼해지기만 바랄 뿐일세. 전에 앓던 병들이 모두 물러가고 크게 새로와지기를 멀리 멀리서 마음 속으로 축원하고 있네.>¹³⁾와 같은 덕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위 글에서 추사는 유배되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절박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즉, 명희에게는 <다만 원하는 것은 우리 형제가 화목하여 덕을 쌓으며 오래 사는 것>이라는 말로, 상희에게는 <머리 센 형제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을까>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절해고도 제주에 圍籬安置된 추사는 임금의 은혜가 자신에게 미치어 사면되어 가족과의 재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처럼 가족의 경사에 대해 함께 하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란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한다. 유배된 처지에서 집안의 슬픈 일을 함께 하지 못할 때의 심정은 어떨겠는가.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마침내 여기서 들었네. 통곡에 통곡을 할 뿐이요, 오히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비록 환후가 대단히 위중하신 것을 알기는 하였지만 어찌 이 대해 밖에서 또한 이 누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들을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나. 슬프고 슬프구나. 돌아가시기까지 근 70년에 험난한 일들을 겪지 않은 것이 없거늘 초탈하여 크게 깨우친 사람 같았으며 문득 다시 호연한 기상이 있어서 조금도 이 세상에 근심을 두지 않으시었었지. 이 기구하고 궁색한 몸을 돌아보

13) 『全集』卷二, 「與舍仲 命喜 (六)」.

仲作回甲老人 壽如金石 四體康固. 舊瘥諸症 一切退聽 新休鼎來 遙遙歌誦.

니 머리는 허영게 세어 가지고 타향에 떨어져 있어서 마치 아득히 길 떠난 나그네 처럼 죽고 사는 데조차 한 가지도 관제하고 참섭할 수 없으니, 이 무슨 사람이 이러할까. 저 하늘 가운데 있어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잊을 수가 없을 터인데 바다 밖에서이랴. 이 못난 사람은 끝 간 데까지 슬퍼하며 가슴을 찢어대고 있으니, 산 사람이 더욱 슬프다는 말을 알 수가 있겠네. 초종의 모든 예절은 때 맞추어 모양을 이루었으며, 출상 시기는 과연 언제이었던가. 함장하는 것은 또한 이롭다고 하는가. 아득하여 들을 길 없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 하겠는가. 북쪽을 바라보고 깊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릴 뿐 쫓아갈 수가 없네.”¹⁴⁾

유배지에서 누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슬픔과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 즉 누님의 생전의 모습을 그리며 누님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고통스런 삶을 살면서도 활달하여 초탈한 모습을 지녔던 누님. 그러한 분이 돌아가셨으나 자신은 죄인의 몸으로 유배되어 있어서 <죽고 사는 데조차 참섭할 수 없>는 것이다. 고인 곁에서 죽음을 지켜 보아도 슬픔이 컸을 터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저 하늘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잊을 수가 없을 터인데 바다 밖에서이랴. 이 못난 사람은 끝간 데까지 슬퍼하며 가슴을 찢어대고 있으니, 산 사람이 더욱 슬프다는 말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며, 자신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북쪽만 바라보고 눈물만 지을 뿐이라고 절규한다. 이 점은 추사의 자기 의식과 자기 감정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세계가 정동적 위상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全集』卷二, 「與舍仲 命喜 (五)」.

而亡姉氏諱音 竟此承聆. 痛哭痛哭 尚復何言. 雖知患候之 萬分危重 而豈料此大海之外 又承此姉氏赴車也. 慟矣慟矣. 以長逝之近七十年 險阻艱難 無不備經 脫然若懸解者 便復浩然 無少留憂於此世. 顧此畸窮 白首淪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念於冥冥之中 猶有不能忘 於海外. 不肖無狀之身 到底慟裂 生者尤可悲也. 初終凡百 幸得及時成樣 曩期果在何時 合耐亦利云耶. 漠然無由聞 是豈生在世間之事. 北望長吁 有淚無從而已.

추사의 형제에 대한 정동은 아우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從兄 教喜에게 보낸 서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섬나라는 아직 가을걷이가 늦지만 북쪽 육지에서는 언덕 위에 낙엽지고 풀과 나무가지들이 변하였겠군요. 이런 때에 건강이 또한 두루 어떠하십니까. 생신이 또한 이에서 머지 않으니 연세가 다시 하나를 더하시겠군요. 저 북두성을 바라보며 이 壽曜(壽星：南極星)에게 고개 숙여 멀리멀리 축수를 드리는 것이 또한 다른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군요. 술잔을 잡고 송수 한 마디를 정성껏 드릴 수가 없으나 아득한 바닷가에 정만은 끝 닿는 데가 없습니다.”¹⁵⁾

중형 교희의 생신이 다가옴을 말하며 바다 밖 멀리서 수성에게 고개 숙여 축수를 드린다고 하였다. 곁에서 술잔을 잡고 송수 한 마디를 드릴 수 없으나, 정만은 넘친다고 한 정리는 빈말만은 아니었다. 아내에게 보낸 한글서간에서도 이에 대한 것이 보인다.

“추동 회갑의 웃은 엇지나 ㅎ여 보내옵. 막연이 생각뿐이오니 덩니 견디기 어렵습. 회갑날 ㄷ반이나 ㅎ여 좁습개 돈낭을 ㅈ어더 보내여야 ㅎ거시니 엇지 요랑 ㅎ옵. 다쇼간 의논들 ㅎ야 ㅎ개 ㅎ옵.”¹⁶⁾

추동(車洞)의 중형 교희의 회갑에 예산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리에 이긋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보아 추사의 형제들에 대한 우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⁷⁾

15) 『全集』卷二, 「上從兄 教喜氏 (一)」.

海國尚遲歛藏 而北陸則泉壤搖落 草木變衰矣. 此時體候諸節 更若何. 封壽又茲不遠 屋壽更進一甲 瞻彼北斗 挹此壽曜 遙遙拱祝 又悲他時可比矣. 執觴一頌 未由如誠 渺渺海角 情有難窮.

16) 김일근, 「언간의 연구」, p.301. (제22신)

17) 추사의 우애는 형제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제수들에 대한 염려, 동

추사의 형제에 대한 情動的 位相은 아우와 종형의 경사, 누님의 상사에 대해 함께 하지 못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특히 누님의 상사에 관여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글에서 그것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 아내와 자식에 대한 情動

추사는 1806년, 21세에 初娶夫人 韓山李氏의 喪을 당하여, 23세에 再娶夫人 禮安李氏를 맞았는데,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다. 이러한 애정은 아내에게 보낸 한글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받는이가 자기 아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신자인 추사가 각별히 한글서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글서간은 물론 한문서간, 悼亡詩, 祭文까지를 포괄하여 살펴려 한다. 한문서간은 받는이가 아내가 아니고 제삼자라는 점에서 추사의 情動的 位相인 人間的인 崩壞와 社會的 相剋, 그리고 激情의 頻發을 읽을 수가 있다.

아내 예안이씨는 평상시에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사는 여름철마다 아내의 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물론, 여름철만이 아니라 모든 서간에서 아내의 안부를 묻고 있지만, 여름에 쓴 서간들을 보면 아내에 대한 넘려가 두드러진다. 곧, <계셔도 미양 여름의 본병 괴운이 나시더니 엇더흐옵>¹⁸⁾이라는 구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애정은 제주 유배생활 동안에 쓴 서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생의 며느리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만 보인다.

○仲嫂諸節 更無餘崇之發現 佑婦所患 有甚謹却之奇耶.

(全集 卷二, 與舍仲 命喜 五)

○此嫂氏中 今月家室 所依賴 果何如. 仲無視之 以一眷屬 而有小忽 如何. 都不如 携往京中之 爲大善. 每未易辨 此遠外紆慮 尤無以爲言. 兒婦媿期 又不遠云 默禱而已. 八珍之月試 雖非老產亦好. 近狀果安好耶.

(全集 卷二, 與舍季 相喜 五)

18) 김일근, 앞책, p.294. (제7신)

“거셔도 년혀여 관겨치 아니 호오시옵. 나앗도다 호여 겨오시나 나오실 이가 잇습. 진정 나오시면 원외의셔 묵음이 위로되오랑마는 그러홀 이가 업스올 듯호오이다.”¹⁹⁾

“그대 병을 지내오시고 요사이야 쇼성이 되오신가 보오나 여슈가 종시 쾌복지 못호오신가 보오나, 게셔도 시경이라 한번 병 드오시면 본디 적상 적피호오신 근 녀의 오작호오시라 이리 동동 녀너 못내 노홀 길 업습. 절절 춘화호옵고 인편 후 쯔 달이나 너머스오나 범절 엇더 호오시옵. 부디 게 혼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 천리 외의 잇는 마음을 싱각호오셔 십분 신섭호야 가오시기 바라오며(하략).”²⁰⁾

앞의 것은 1841년, 유배된 이듬해인 56세 때 쓴 것으로, 수록 2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아내의 병에 대한 측량할 길 없는 염려를 보이고 있다. 인편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여 거듭 확인하려는 추사의 마음에서 현실을 확대하여 보려는 정동적 위상의 한 형태를 보는 것이다. 뒤의 것은 그 이듬해에 보낸 것으로, 아내에 대한 염려, 애정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 있다. 아내 역시 老境이라 한번 병을 앓게 되면 쾌유될 길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게 혼 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리 외의 잇는 마음을 싱각호오셔 십분 신섭호>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렇듯 노경에 이른 추사의, 아내에 대한 정동적 위상이 어떠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동보다 더욱 애절한 것은 다음의 사연일 것이다.

“경득 회편은 어너 썩 드러가습. 그 후로는 선편이 거리가 막히여 소식을 오리 못듯조오니 어너듯 동지가 지격호온디 미령호오심 엇더호오시옵. 그 증이 돌연 이 각이 어렵스오나 이 동안 가감동정이 엇더호오시고, 벌셔 석달이 너머스오나 원과 범절이 오작 피호여 겨오시라. 이리 외오셔 동동 녀너 엇더타 호올 길이 업스오며, 침식범빅은 엇더호옵. 이동안은 무습약을 주시며 아조 위석호야 지내옵. 간절호

19) 앞책. p.299. (제21신)

20) 앞책. p.302. (제27신)

심너 갈수록 지정치 못하개습. (중략)인편이 하 업습기 주성이나 모습 인편 이실 지 대강 두어 주 안부만 이리 브치오니 패히 평복이 되신 소식 이리 날로 기돌이옵. (중략)

임인 지월 십사일 상장

심진이 지격하오시니 아히들 하고 한가지로 지내오실 일 요요히셔 생각 쏘이옵.”²¹⁾

“전편 서간 부치온 것이 인편의 혼가지로 갈 듯하오며, 그식이 시 본관 오는 편 의 녁뉴의 서간 보오니, 이식이 년하야 병환을 세지 못하오시고 일야진퇴하시나 보 오니 발서 여러 달을 미류하오며 근력 범벅이 오작하와 겨오시개습. 우록정을 주 시나 보오니 그 약의나 썩히 동덩이 겨시올지. 원외셔 심너초절하습기 형용 못하 개습. 나는 전편 모양이오며 그져 쇼양으로 못견디개습. 감쇠올 아니 보내올 길 업셔 이리 보니오나 그 가는 모양 촘촘하오니 각동의 또 일층 심회를 덩치 곳하개 습. 급히 써나보내기 다른 사연 길개 못하옵.

임인 지월 십팔일 상장”²²⁾

아내 예안 이씨는 1842년 11월 13에 별세했다. 그러니 처음의 것은 아내의 사후 하루 뒤에, 뒤의 것은 5일 후에 쓴 것이다. 위 글 모두 오랫동안 병을 앓아 온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 아내가 복용하는 약, 음식과 잠자리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심함은 유배 이전의 서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유배생활에 직면한 추사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유배생활로 인하여 내밀하면서도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정동적 위상의 한 형태이다.

위의 서간의 우리를 애절하게 하는 것은,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썼다는 사실에도 있지만, 처음 것의 追記이 성격을 갖는 부분이다. 아내의 생일이 가까워 오고 있음과, 그 생일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광경을 멀리서 생각한다는 내용인데, 당사자인 아내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뒤의 것은 처음의 서간을 쓴지 4일 뒤에 쓴

21) 앞책. p.304. (제30신)

22) 앞책. pp.304-305. (제31신)

것으로, 처음 것의 追伸의 형식을 갖춘 것²³⁾으로 서한문의 성격상 주목을 요한다. 위의 서간을 보면, 추사는 이미 아내에 죽음에 대한 예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천리의 먼 곳에서 돌아가는 사람을 붙잡고 또 한 통의 서간을 쓰게 만들도록 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할 것이다.

아내가 돌아간 후, 추사는 중형 교회에게 한문서간을 썼는데 아내에 대한 애정과 아내를 잃은 슬픔의 정동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초종 장례가 때에 맞았다 하니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널의 재료를 그곳에서 가져다 썼다 하는데 분수에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널 두께가 세 치라서 쉽게 썩으면 어때서 무엇하러 몇 해를 두고 만든 것에서 얻어 썼답니까. 무덤은 어느 곳에 쓰고, 장사는 어느 날로 정하는지, 막연히 관계하여 간섭하지 않고 눈두렁 보듯 하였습니다.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뒤에 죽는 책임을 지려 한 것이거늘 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순히 타일러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감히 지키어 경계하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정신을 상하게 하니 역시 장자의 달관에는 이르지 못하는가 봅니다.”²⁴⁾

아내의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棺으로 쓰인 널판이 분에 과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꾸어 온 추사로서는 아내의 죽음에 직면하여 지금까지의 애정보다 더한 애정을 표현하려 했을 것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사는 제주에 유배되어 있는 유형수로 아내의 죽음을 돌보려 하나 다음뿐이다. 그

23)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p.114.

24) 「全集」卷二, 「上從兄 教喜氏 (二)」.

初終及時 尚幸 板材取用於那中云 似過分數矣. 相板三寸 易朽何妨 而何以損惠於歲制之餘耶. 山事定於何處 襄期定在何日 而漠然無關涉 視如陌路. 鱗鱗獨生 欲効於後死之責 而不可得 是豈生在世間事耶. 諄諄慰勉之教 敢不守誠 苟令傷神 亦未作莊叟達觀.

래서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뒤에 죽는 책임을 지려 한 것이거늘 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논두렁 보듯> 망연자실할 뿐, 상황을 받아들이 체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걱정이 빈발하는 내면 심리를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을 때는 심리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나 추사는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추사의 悼亡視「配所挽妻喪」과 祭文「夫人禮安李氏哀逝文」이 바로 그것이다.

那將月老訟冥司	(어떻게 月老께 하소하여
來世夫妻易地爲	서로가 내세에는 바꿔 태어나
我死君生千里外	나 죽고 천리 밖에 그대는 살아
使君知我此心悲 ²⁵⁾	이 마음 이 설움 알게 했으면.)

아내를 잃은 슬픔을, 내세에서는 서로 바뀌어 태어나서 자신은 죽고 아내가 살아서 알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아내를 잃은 안타까움을 내세를 빌어 나타내면서도, 그 슬픔이 과장되지 않고 눈에 환히 떠오르도록 하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도당시에 대해 양순필 교수는 斯界의 悼亡詩 중에서도 上乘의 地位에 있는 작품이라 하였다.²⁶⁾

추사는 아내의 訃告를 두 달 뒤인 1843년 正月에야 받는다. 그는 유형수의 몸이면서도 상복을 갖추고 통곡하며,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썼다.

아아, 나는 착고가 앞에 있고 산과 바다가 뒤따랐으나 아직 내 마음을 흔들게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한낱 아내의 죽음에 놀라 가슴이 무너져 마음 잡을 수 없으니 이 어인 까닭인가. 아아, 대체로 사람마다 모두 죽음이 있어, 홀로 아내만

25) 「阮堂先生全集」 卷九.

26) 梁淳秘, 「秋史의 悼亡詩와 祭文考」, p.342.

죽음이 없을 수 있으리오만, 죽을 수 없는데 죽은 까닭으로 죽어서 지극한 슬픔을 품게 되었을 게고, 기막힌 원한을 품었으리라. 그래서 장차 뵙어내면 무지개요, 맺히면 우박이 될 것이므로 죽히 공부자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기에 착고보다도 더 심하고 산과 바다보다도 한결 심함이 있나 보다. 아아, 삼십년 동안 효를 다하고 덕을 쌓아서 친척들이 칭찬했고, 친구는 물론 남들에 이르기까지도 감격해서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찌릿한 일이라 해서 아내는 받기를 즐기지 않았던 것이다. 허나 그대로 잇을 수가 있겠는가.

예전에 일찍이 장난으로 말하되, 아내가 만약 죽으려면 나보다 먼저 죽는 것만 못할 것이니 그래야 도리어 더 좋을 것이라 하면 아내는 크게 놀라, 이 말이 나오면 곧 귀를 막고 멀리 피하여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세속의 부녀자들도 크게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내 말은 끝가지 장난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아내가 앞서 죽었구나. 먼저 죽은 게 무엇이 시원했겠는가. 내 두 눈으로 흠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을 보게 할 뿐이니 푸른 바다 넓은 바다에 한스러움만 끝없이 사무치는도다.²⁷⁾

아내의 有德함을 기리고, 함께 있던 추억과 아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절절하게 표백하고 있는데, 단장의 절규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아내와의 농담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그 비통함이 오죽했을까. 그 비통함이 마지막 부분에서 절해고도의 원악지 제주도 대정현에서 유배생활 중 상처를 당한 유형수로서 〈鰥鰥獨生〉의 심정을, 푸른 바다 넓은 하늘에 한스러움만 끝없이 사무친다고 하고 있다.

27) 『阮堂先生全集』 卷七.

曰嗟嗟乎 吾桁楊在前 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一婦之喪也 驚越遁剝 無以把握其心 此曷故焉 嗟嗟乎 凡人之皆有死 而獨夫人之不可有死 以不可有 死而死焉 故死而舍至悲 如奇冤將 噴以爲虹 結而爲靈 有足以動夫子之心 有甚於桁楊乎 嶺海乎 嗟嗟乎 三十年孝德 宗黨稱之 以至朋舊外人 皆無不感誦之 然人道常而夫人所不肯受者也 然俾也可忘 昔嘗戲言 夫人若死 不如吾之先死 反復勝焉 夫人大驚 此言之出此口 直欲掩耳遠去 而不欲聞也 此固世俗婦女 所大忌者 其實狀有如是者 吾言不盡出於戲也 今竟夫人先死焉 先死之有何快足 使吾兩目 鰥鰥獨生 碧海長天 恨無窮已.

이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은 일종의 挽書라 하겠으며, 종래의 유가에서 사용하던 漢文祭文의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산문형식으로 쓴 제문으로 아내에 대한 애도와 유배문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유배지에서 아내의 타계한 소식을 듣고 지아버로서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哀逝와 상처를 당한 哀切, 悲嘆 등의 심적 상황을 표백한 逸品이다.²⁸⁾

추사는 아내의 소상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가 방석된 것은 아내가 돌아간 지 6년 뒤의 일이다. 소상날에 대한 언급은 양자인 상무에게 보낸 한문서간에서 보인다.

“이해도 벌써 새 날이 많이 지나서 소상날이 훌연히 지나가 버렸으니 너희들이 어미 잃은 슬픔이 무척 크리라. 나 역시 이곳에서 한번 울고 상복을 벗었다. 어찌 이와 같은 정리가 있을까 보나.”²⁹⁾

자식들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한 번 울고 상복을 벗기 위해서 그 동안의 고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의 울음은 어쩌면 세상을 잃어버린 자의 울음인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하소연할 데를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사정을 말할 곳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사는 아내의 장례에는 물론, 소상날에도 참석은 커녕 남의 눈두렁 보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찌 이와 같은 정리가 있을까 보나>라는 말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표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생존의 의미를 잃어 버린 데서 오는 것이며,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정동적 위상의 한 예가 된다.

우리가 추사 부부의 애정을 거론할 때 존대어의 사용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어느 서간에서건 아내에게 각듯이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 역시 자신을 낮추

28)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p.114.

29) 「全集」卷二, 「與懋兒(二)」.

此歲候新 迫祥奄過 汝輩攀痛廓然. 吾亦於此一哭除服.
寧有如許情理也.

는 공손선어말어미 ‘-읍-’, ‘-습-’ 등을 사용하여 종결짓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아니혹읍’, ‘업습’ 등과 같이 어말어미를 생략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서한을 연속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견해³⁰⁾도 있다.

그리고, 아내를 일컫는 指稱이 색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거귀 서간도 못보읍고 (제5신)
- 거귀셔 내려오시게 혹개습 (제1신)
- 거셔 훈주 휴슈러 (제28신)
- 거셔논 엇지 혹시읍 (제2신)
- 거셔도 년혹여 관겨치 (제21신)
- 게 훈 몸으로만 (제27신)
- 게셔 갖튼 스세가 (제9신)
- 게셔가 오시면 (제9신)
- 게셔논 업고 (제2신)
- 게셔도 밋양 여름의 (제7신)
- 게셔만 혹야도 (제17신)

‘거귀(거귀셔), 거셔(거셔논, 거셔도), 게(게셔, 게셔논, 게셔도, 게셔만)’ 등이 쓰이고 있는데, 이 지칭들은 다른 이들의 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추사만의 독특한 것이다. 이것들은 ‘거귀-셔, 거-셔, 게-셔’로 분석할 수 있으며, ‘거귀, 거, 게’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곧, 지시대명사인 것이다. ‘-셔’는 주지하다시피, 존칭의 조사로서 일반적으로 주격의 자리에 나타나며, 현대어 ‘-께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사는 지시 대명사와 존칭의 조사를 결합해서 아내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아내를 존경하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매우 창조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와 비슷한 예는 황순원의 경우에도 보이는데, 그는 인칭대명사 중 3인칭여성을

30) 양순필, 앞책, p.117.

나타내는 말로 '그네'를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네'란 말은 대명사 '그'와 일반적으로 여성을 가리킬 때 쓰이는 접미사 '-네'를 결합하여 만들었다³¹⁾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아내를 가리키는 지칭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한문서간에서 나타난다. 商戀를 입양한 후 그에게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서간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天倫이 크게 정하여져서 사당을 맡기었으나, 아직 한 가지 기운도 서로 쏟아 붓지 못하였는데 산천이 사이를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이미 네 글에서 그것을 느꼈다.

내가 이미 이곳에 있어서 네게 얼굴을 대하고 가르칠 수 없으나, 너는 오직 네 병든 어머니를 잘 보호하여 봉양하고, 정성껏 네 둘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며, 선조를 받들고 웃어른을 모시는 도리에 힘써 신중하기 바란다. 우리 집안의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규칙은 곧바른 도리로써 행하는 것(直道以行)이니 삼가 굳게 지켜서 혹시라도 감히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라.”³²⁾

아직 만나 보지도 못한 상무에게 가문의 가르침을 전하는 추사의 모습에서 일문의 종손으로서의 근엄함과 자식에게 기울어지는 따스함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수록 2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그러한 物理的 距離도 부자간의 정리를 막을 수는 없어 오히려 부자간의 心情的 距離는 더욱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한 가지 기운도 서로 쏟아 붓지 못하였는데 산천이 사이를 막을> 수는 없음을 상무의 서간에서

31) 황순원, 「그와 그네」, 「문학예술」, 1955.8.

「황순원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에 재수록.

32) 「全集」卷二, 「與戀兒(一)」.

天倫大定 宗祧有託 姑未即見一氣之相貫注 非山川所可間 已於來書驗之. 吾既在此 無以面命汝 汝惟葆養汝病慈 恪遵汝仲父訓戒 奉先事長之道 克欽克慎. 吾家傳來舊規 是直道以行 兢兢固守 罔敢或墜.

느꼈다고 했다. 이것은 추사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것으로 추사의 정동적 위상을 보여준다.

유배된 처지에서 얼굴을 대하고 가르칠 수는 없으나, 집안에서의 할 일들을 하나 하나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嚴父의 면모와 더불어 지향적 위상의 한 면모인 理知的이고 保守的인 태도를 보는 것이다. <곧바른 도리로써 행하라(直道以行)>는 가훈을 말하고, 그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에서 추사 일문의 가풍을 짐작할 수 있다.

추사의 이러한 근엄함은 庶子인 商佑에게 보낸 서간에서의 蘭法에 관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난초를 치는 법은 역시 예서를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文字香과 書卷氣가 있는 연후에야 얻을 수 있다.

또 蘭法은 그리는 법식을 가장 꺼리니, 만약 화법이 있다면 그 화법대로는 한 붓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趙熙龍 같은 사람들이 내 난초 그림을 배워서 치지만 끝내 화법이라는 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슴 속에 文字氣가 없는 까닭이다.

지금 이렇게 많은 종이를 보내왔으니, 너는 아직도 난초 치는 경지와 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처럼 많은 종이에 그려 달라고 하지만 특별히 싸움 토해내어 난초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서너 장의 종이를 지나칠 수 없다. 神氣가 모여들고 境遇가 무르녹아야 하는 것은 서화가 모두 똑같으나 난초를 치는 데는 더욱 심하거늘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만약 화공들과 같이 화법에 따라서 치기로 한다면 비록 한 붓 가지고서라도 천 장의 종이에 친다고 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치려면 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난초를 치는 데 있어서 나는 많이 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너도 일찍이 보던 바이다. 이에 약간의 종이에 그려 보내고, 보낸 종이에 죄다 그리지는 않았다. 모름지기 그 妙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33) 「全集」卷二, 「與佑兒」

蘭法亦與隸近 必有文字香書卷氣 然後可得. 且蘭法 最忌畫法 若有畫法 一筆不作可也. 如趙熙龍輩 學作吾蘭 而終未免畫法一路 此其胸中無文字氣故也. 今此多紙送來 汝嘗不

상우가 난초를 그려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많은 종이를 보내 온 것에 대한 답사로, 추사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글이다.

蘭法과 隸法은 동일하여 그것들은 한날 장이의 기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書卷氣와 文字香, 즉 정신적 수련을 쌓은 뒤에야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추사에게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지이다. 하나의 난초를 그리기 위해서는 <신기가 모여들고 경우가 무르녹아야> 하는데, 상우가 그런 연유를 알지 못함을 탓하면서도, 당부를 잊지 않는다. 난법의 묘법을 상우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이러한 당부의 이면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團籬安置라는 기약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속에 처해 있는 추사로서는, 늘 곁에서 지켜 보아 온 자식이 자신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분노와 절망에 가까운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심정이 <난초를 치는 데 있어서 나는 많이 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너도 일찌기 보던 바>이며, 그래서 <모름지기 그 묘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완곡한 말로 나타난 것이다.

추사의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다음의 글에서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깜박이는 등불과 해묵은 책들이 공부를 거둘 수 없게 한다. 늙은이는 잠이 없
는지라 늘 너희들만 생각하는데, 글 읽는 소리가 황홀하게 귓가에 들리는 것 같구나. 이 마음의 고통스러움과 상관없이 나는 옛처럼 글을 읊으며 지낸다.”³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수록 2천리를 격했으나, 추사는 자식들의 글 읽는 소리를 幻聽으로 듣는다. 이러한 환청은 정동적 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

解蘭境趣味。有是多紙之求寫 殊可憤筍寫蘭 不得過三四紙。神氣之相湊 境遇之相融 書畫同然而寫蘭尤甚 何有多得也。若如畫工輩 酬應法爲之 雖一筆千紙 可也。如此作不作可也。是以畫蘭 吾不肯多作 是汝所當見也。今以略干紙寫去 無以盡了來紙 須領其妙可得。

34) 「全集」卷二, 「與懋兒(三)」.

青燈黃卷 能不撒課。老人無眠 每念汝輩 讀聲悅若在耳畔。此心 良若 吾如舊吟嘯。

서간에 표백된 추사의 내면세계는 앞에서 언급한 김일근 교수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항에서는 추사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을 살펴 보았다. 한글서간에 나타난, 아내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존대어의 사용, 아내를 일컫는 독특한 지칭을 창조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悼亡詩와 祭文에 나타난 아내에 대한 애절한 심정 등을 통해 볼 때 그는 아내에게 무한정의 애정을 가꾸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자식에게 쓴 정감어린 서간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수록 2천리를 격하여 있으면서도 부자의 정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며, 자식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는 추사의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자 상무에게 가훈인 〈直道以行〉을 지켜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글에서 理知的이며 保守的인 位相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志向的 位相

1) 집안에 대한 志向

추사의 집안에 대한 志向的 位相은 종손의 태도로 나타나며, 그것은 제사에 대한 至誠과 後嗣를 잇게 된 기쁨으로 나타난다.

추사의 제사에 대한 정성은 아내에게 쓴 한글서간에 잘 나타나 있다. 제사를 모실에 있어서, 제사에 대한 유교적 관념이 약해진 지금도 많은 정성을 쏟는 만큼, 조선조에서는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 그는 崔沔의 여지가 없다. 일찌가 孔子가, 내가 삼가는 것은 祭祀와 戰爭, 疾病의 세 가지가 있다³⁵⁾고 한 이래로, 공자의 후예를 자처하는 조선조의 士大夫들은 제사를 모실에 있어 온갖 것을 조심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추사의 한글서간을 보면 제사에 관한 많은 언급이 있는데, 2천 리의 머나먼 곳에서 맞는 제일에 위리안치된 추사는 망극지통한 감회를 보이고 있다.

35) 「論語」述而. “子之所慎 齊戰疾.”

“지난달 회일 제사 지나오시니 철철헌지훈 망극지통 더욱 원통은박하야 죽지의 죽어 모르고 시브오니, 고금 천하의 이런 사롬 정니 광경이 어디잇스올잇가. (중략) 나는 사라있다 ㅎ을 길이 업습.”³⁶⁾

생부 노경의 제일(3월 30일, 1837년 亡)을 유배지에서 맞은 추사의 비통한 심회가 적나라하게 표백되어 있다. 운상도옥사에 연루되어 부 노경은 고금도에 유배 당한 바가 있었고, 자신은 부친이 당한 그 옥사의 재론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유배 당한 처지가 되었으니, 그 심회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제사에 참례하지 못한 심정을, 그 원통함이 하늘과 땅에 사무치고,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죽어 세상 일을 모르고 싶다고 하였다. 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나는 사라있다 ㅎ을 길이 업다>, 즉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로 그 처절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간에 시간의 격차를 두고,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당쟁의 희생물이 되어 유배 당한 추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海風波를 느끼게 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추사의 처절한 심경은 비단 생부 노경의 제일에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양부 노영의 제일을 당한 심경을 표출한 것도 있다.

“초성의 년하와 성진날과 제스 지내오시니, 외오서 당극지통 더욱 원박하웁고 제스는 엇지나 하야 지내와습. 잇씨의 향똥은 더욱 제품이 무론 어육 과품하고 다 어려울 듯하오니, 그런 심각을 ㅎ을수록 죄롬기 축냥하야 이를 길이 업습”³⁷⁾

양부 노영의 제일(7월 4일, 1797년 亡)과 생일을 당한 추사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다. 제사에 참례하지 못한 원통함과 더불어 여름철에 祭需를 마련하는 데 대한 걱정

36) 김일근, 앞책, p.300. (제20신)

37) 앞책, pp.340-41. (제24신)

등을 나타내어, 자상하면서도 넉넉한 인품을 짐작하게 한다.

추사는 종손으로서 집안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다. 그의 관심의 양상은 일가의 병환, 임신 및 해산, 아이의 돌 등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한 집안에 대한 추사의 지향은 後嗣에 대한 것으로 더욱 잘 나타난다. 그는 嫡子가 없어서, 10촌척 泰喜의 아들 商懋를 입양시켰는데, 그 입양 소식을 들은 추사의 심정은 다음과 같은 서간에 잘 드러나 있다.

“아들을 완정호와 종도 의탁이 되었고, 우리가 근육십의 부모 말을 드르니 문호의 이런 경수 어디 잇습. 아직 보지 못하야스오나 보나답지 아니하게 듯좁고, 이리 궁박히 된 쟈 이런 대수가 순성하웁고, 일 무비도선이 음우하오시고 천심이 회화하오시는 일갓스와, 더욱 일변 견유하고 일변 궁구하고 혼가지로 안주 잇지 못하는 일 섭섭하오나, 이런 스정은 오히려 둘째올쇼이다, 며느리는 아직 다려오지 못하온가 보오니 스세가 그러하올 듯하오나 굶굶하오며 도모지 문운의 달인 일이 오나, 견혀 교도하기의 잇스오나 마음이 가지가지 동동경경하웁. (중략) 새로 아히을 다리고 과세을 하오시니 집안이 흥영호 듯하오시리, 요요히 일껏좁고 거셔가 인주야 만복을 누리야시는가 이리 또 일껏좁.”³⁹⁾

추사가 제주에 유배된 다음 해(1841년)에 상무를 입양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는 위의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양자를 들이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조상이 도우신 것이며 하늘이 힘쓴 덕택이라 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양자 상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섭섭하다고 하면서도 기꺼워 하는 모습이 눈에 잡힐 듯이 선하다. 그러한 기쁨이 새해의 過歲풍경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내의 晚福을 누림을 기뻐하는 모습에서, 추사의 아내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서 추사의 그 동안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다. 후사없이 근 60을 지냈으며, 또 수륙 2천리나 떨어진 고도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처지로 온갖 고적감과 울분에 휩싸여 지냈으리라는 추측은 어렵

38) 앞책, 제12신(pp.295-96)과 제15신(p.297) 참조.

39) 앞책, p.341. (제26신)

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러할 때의 입양 소식은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살아 있는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추사가 자손을 얻은 것은 그가 情動的 位相에서 志向的 位相의 한 측면인 節度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아히는 두고 볼수록 사름 되미 가장 귀특하온가 보오니 일문의 다형하옵고, 게 서가 만니의 효양을 바드라 그리하온가 이리 축슈하오며, 부주간 잇씨가지 못보오니 인정이 덩 어렵스오나 오히려 둘째의 일이오며, 제가 와서 보라 혼다 하오니 정니의 고히치 아니 하오나 너을 엇지 경경이 올가 보옵. 즉금 우리가 빅슈지년의 겨요 저을 어더노코 천금 만금가치 어르고 고이논디 저을 엇지 여귀 드러보너며 엇지 드리오개 하옵개습. 제 혼 몸이 중난하기 우리 두사름만 가지고 하을 주식이 올잇가 보옵. 조상의 동하온 거슬 제몸이 시러 노코 잇스오니, 아모리 부주지의가 동하와도 조상의 동하온 것과 비교 못하옵는 거시 예부터 성현이 질정하야 만세의 범을 드리오신 거시오니, 더고나 혼 일만 심각하옵고 그리하올가 보옵. 늬이만 하야도 오지 못하옵개 하을 거슬 엇지 저을 경이히 오개 하올가 보옵. 게서라도 말너 이런 도리올 개유하야 이르게 하옵.”⁴⁰⁾

양자 상무가 추사를 상면하러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받고 극구 만류하는 서간이다. <부주간 잇씨가지 못보오니 인정이 덩 어렵스오나 오히려 둘째의 일>이라고 하고 있다. 그 까닭을, 아무리 父子의 義가 중하다 하지만 祖上의 重한 것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는 데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무가 자신을 대면하러 공포의 해협인 제주해협을 건너다 목숨을 잃게 되면, 奉祭祀 할 자손이 끊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손을 소중히 여기는 추사의 태도는 명회와 며느리에게 보낸 서간에서도 드러난다.

“큰며느리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았다니 이것은 집안에 처음 있는 경사일세. 조상님들이 돌보고 도와주시어서 가운을 장차 회복시키려고 먼저 이 훌륭한 아이를 주신 것인가 모르겠네. 손자를 안아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육십 가까이 얻으니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않겠는가. 이 아이는 우리만이 얻어서 사사로이 할 사람이 아

40) 앞책. pp.302-303. (제27신)

날세. 아이가 난 것이 설달 그믐이라 하니 그 날은 곧 天恩日로서 가장 길한 날일네. 선친의 생신과 같은 날인 것도 역시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며, 또 우리들이 날마다 우러러 비는 것이 天恩(임금의 은혜)에 있는데, 아이가 이 천은일에 난 것이 어찌 더욱 기이하지 않겠는가. 아이 이름은 그대로 천은의 두 글자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겠네. 아이의 그 상세한 여러 일들을 또한 하나하나 말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듣건대 그 꼴상이 범상치 않다고 하니 기쁘기가 말할 수 없네. 百日이 머지 않으니 생각컨대 날마다 아름답고 점점 빼어 나리라 생각되네. 젖은 좋으며 에미도 역시 딴 병은 없는가. 생각이 간절할 뿐일세.”⁴¹⁾

“그스이 순산을 하고 아드을 나하사 하니, 종손의 경스 처음으로 보니 痘瘡(祖宗)이 권우하신 듯. 네 몸이 와서 저리 유공유복하야 종석의 광채가 되니 문운이 초초 열녀 가는 듯. 원외의 더욱 경헝하고 오히려 즉시 보지 못하는 것은 궁금하나 었지하리. 아히 생긴 거시 비범하다 하니 마음의 더고나 구지 든든하다. 아히 나기를 남월 그믐날이나 하니 그날이 천은 상길일이니, 그도 우연치 아니하야, 실가 선친이 천은일 나오셔 쇼명가지 은주를 너히 지어 겨오시더니, 이 아히가 또 이려하니 아니 귀 신통하운 일이나. 일흠을 천은이라 지어 보내니 그리 불러라. 봄이 다 되고 날이 창화하니 산후 범신이 무양하고 어린 것 년하야 잘 잇는야. 부디 조심조심하야 기르게 하야라.”⁴²⁾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이 조상들이 도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아이를 주신 것이라 하였다.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만이 아니라,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를 태어난 날이 설달 그믐, 천은일로서 선친 魯

41) 『全集』 卷二, 「與舍仲 命喜 (三)」.

允婦之順娩 舉丈夫子 是宗祧初有之慶. 祖宗眷佑 家運將回 其先之以嘉兒耶. 至若在抱之樂 年迫六十 豈不欣喜. 此兒非吾所得而私之也. 兒生聞在臘晦 其日則爲天恩上吉也. 仰符於先親生辰 亦不偶然. 且吾輩之日日顯祝 在於天恩 而兒以是天恩日生者 尤豈不奇且異耶. 兒名仍以 天恩二字命之 甚好. 其詳兒子內外 許亦一一佈告 如何. 聞其骨相不凡云 喜不可言. 百日不遠 想日以韶秀. 善乳而乃母亦無他瘥耶. 念切念切.

42) 김일근, 앞책, p.343. (제33신)

敬의 생신과 같은 날이라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임금의 은혜를 들고 있는 것은 추사의 한계라 하겠지만, 손자를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것이다. 더우기 <젓은 좋으며, 예미도 역시 딴 병은 없>는지, <산후 범절이 무양하고 어린 것 년야 잘 잇>는지 묻는 것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그가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배생활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 두 서간은 내용이 모두 같지만, 한문서간에서는 임금의 은혜를 거론하고 있으나, 한글서간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받는데 따라서 사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손자를 얻어 기쁨은 비단 자신의 손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회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듣자니 자네가 손자를 보는 기쁨을 가졌다고 하더군. 사람이 누군들 자식과 손자가 없으리오마는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다만 한 가지 인사 말을 더할 수만은 없으니, 이것은 온 집안의 큰 경사이며, 의지할 곳이 이제 터져나온 것이라 하겠네. 蠶의 몸에 자녀가 있어서 무릎을 둘러싸니 여치나 목화 다래처럼 우리 집안을 번창시키겠네 그려.”

이치가 이와 같으니 선조의 영령들이 오르내리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이는 듯하여 슬퍼지네. 기쁨을 만나서 감격하여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니 또한 어떤 심정이겠는가. 손자에 대한 손자라. 광이의 이렇게 튼튼한 두 아이가 꼴상이 범상치 않다니 기특하고 이상하네. 생각하고 생각하니 마치 우리 집안에만 홀로 있는 일 같군. 자네의 50년 곤궁함은 만년이나 크게 좋은 일이 와야 할 터인데 또한 이제서야 그 조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네. 때 맞추어 산천에 비가 내려야 할 터인데, 먼저 구름을 보내는 것인가. 한스러운 것은 자네가 손자를 안고 엿을 빨아 먹이며 불에 가득히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일세.”⁴³⁾

43) 『全集』 卷二, 「與舍季 相喜 (五)」.

且聞季抱孫之喜 人孰不有子有孫 在於吾家 不可但以一添丁言 是門戶之大慶 積年之流發. 其在蠶兒之身 子女繞膝 綿瓜瓞斯 昌大吾門. 理當如此 先靈垂臨 悅豫之容 愀然如

아우 상희가 손자를 얻음으로써 집안이 번창할 것임을 말하고, 그 사실에 조상들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유배당한 처지를 생각하며 가족과의 재회를 그리는 추사의 모습은 무척 애처로울 정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사는 형제들에 대한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으며, 後嗣를 걱정하는 데서 조상에 대한 香火를 우위에 두어 유교의 윤리에 철저하였고, 집안의 대소사에 세심한 주의를 쏟고 있어서 집안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매우 두터웠다는 점에서 추사의 집안에 대한 志向을 알 수 있다.

2) 社會的 志向

추사는 유배 생활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社會的 志向을 철저히 생활화 한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철저함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에 대하여 속임이 없는 태도야말로 그의 참모습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題君子文情帖」에 쓰인 다음의 말은 그의 예술관과 생활 태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봉황새의 눈, 코끼리의 눈은 통행하는 法式이라 이것이 아니면 난초를 그릴 수가 없다. 비록 이 小道라도 법식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나아가 이 보다 큰 것에서라. 이 까닭에 잎 하나 꽃잎 하나라도 스스로를 속이고는 얻을 수 없고 또 남을 속일 수도 없는 것이다. 열 눈이 보고 있고 열 손가락이 지적하고 있으니 엄격한 것인저! 이런 까닭에 난초를 그리려면 자기를 속임이 없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⁴⁴⁾

見於無形之中，遇喜感潮 又當何壞，黔孫之又是一黔，藿子之如是○角 骨相不凡 且奇且異，思之思之 殆若吾家獨有之事，季之五十年窮困 晚境大來之吉 亦可以兆現於今，家運積否 剝復一理之昭昭 又有時兩山川 先之以出雲耶，恨無由即見 季之抱弄 含飴滿臉堆喜也。

44) 「全集」卷六，「題君子文情帖」。

此鳳眼象眼 通行之規 非此無以爲蘭，雖此小道 非規不成 況進而大 於是者乎 是以一葉一辨 自欺不得 又不可以欺人，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是以寫蘭下手 當自無自欺始，(김혜숙 譯)

난초 그림을 난초 그림이게 하는 規式이 있고, 난초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 규식을 따름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난초를 그리는 올바른 태도임을 말하고 있는 이 글은 그대로 삶의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행동의 규식을 올바르게 따를 때 인간다운 인간, 곧 선비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을 속임이 없음(無自欺)>이라는 말 속에는 마음의 수양을 포괄하면서 삶의 모든 원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無自欺'라는 말은, 진정한 군자는 貧賤에서는 貧賤의 道를 富貴에서는 富貴의 道를 행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행위에서도 도를 실천한다는 孔子의 말⁴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추사의 삶에 대한 사회적 지향은 그의 유배 생활을 통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도를 누리던 그가 원악지 제주에 유배되어서 겪는 생활은 이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그가 원치 않았던 것이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괴로웠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았던 곳에서의 생활을 점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며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지향적 위상을 보여 준다.

“초일일 대경비쇼의 오오니 집은 넉넉히 용신히를 만흔 터울 어더 혼간 방의 마로 있고 집이 정하야 별노 도빅도 홀 것 업시 드러스오니 오히려 과하은 듯하읍. 먹음시논 아직은 가지고 온 반찬이 잇스오니 엇지 견티여 가올거시오, 심복이 쇼산이오니 글노 쏘 견티듯하읍. 쇠고기는 절귀하오나 혹 가다가 어더 먹을 도리도 잇습논가 보옵. 아직은 두셔울 정치 못하오니 엇더훈 줄 모르개습.”⁴⁶⁾

“나는 되여가는 터로 지내자 정하야스오니 엇지 못지내개습”⁴⁷⁾

45) 「論語」 里人.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不居也. 君子去仁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 必於是 顛沛必於是.

46) 김일근, 앞책, pp.298-99. (제19신)

47) 앞책, p.299. (제21신)

처음의 것은 제주에 유배되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유배지에 당도하여 배소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채 정리되지 않은 심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뒤의 것에서는 그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연이 보인다. 이러한 결심이 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보내온 饌物과 衣服에 대해서 나타난다.

“비편의 글월은 보옵고 보시오신 찬뉴들은 슈대로 주시 밧다 괴별호신 터로 먹스오니, 서울 맞시라 비위가 열니오나 이리호개 호야다가 천니 밧기서 구복을 위호야 호옵는 일이 도로혀 어분의 과호옵.”⁴⁸⁾

“이번의도 보시오신 찬품은 주시 바다 조히 먹고 개위가 되오니, 먹을 ○마다 너분의 과호온 듯호옵.”⁴⁹⁾

歲船 편에 부친 김치 향아리 등은 과연 탈없이 도착하였네.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김치 맛을 보니 심히 입맛이 상쾌하여 입에 지나친 듯하군. 羅州牧에서 또 이번 편에 약간의 김치 향아리를 보내었는데 역시 전처럼 손상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서 밥을 잘 먹을 수 있을 뿐일세.”⁵⁰⁾

위 글에서는 추사는 이미 자신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비치고 있다. 아내와 서울, 나주목에서 보내온 찬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상희에게 쓴 서간은 아내가 돌아간 지 2년 후의 것으로 오랜만에 김치 맛을 보니 기분까지도 상쾌하나 역시 과분하다고 하였다. 물론, 보내온 찬물들이 그가 질병에 시달려 보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유배지의 생활에서는 과하다는 느낌

48) 앞책, p.342. (제26신)

49) 앞책, p.303. (제27신)

50)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 (三)」.

歲船便所付 菹缸等屬 果無頌來到. 幾年之間 始得嘗沈菹之味 甚覺爽 而於口過濫然矣. 羅牧又於今便 以如干菹缸入送 亦不損敗如前 時可得開胃耳.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流刑囚로서의 생활이 분에 넘침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유배지 제주에의 생활에 점차 그가 적응하고 있음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의복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잘 나타난다. 제주 유배시에 아내에게 쓴 서간에는 의복에 관한 것이 거의 매 서간마다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아내가 너무도 뒷바라지를 잘해 준 때문이라는 견해⁵¹⁾도 있으나, 필자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그가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명주옷을 입지 않고 무명옷을 입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바지는 무명것 고쳐 보내고 명지바지는 보내지 마옵. 여의 토쥬바지 껌나 잇는 것손 조금 독점기 입지 아니호고 아직 두어습. 두루막이나 둘다 고쳐 보내옵. 무명 두루막이가 험롭지 아니호오니 상량호야 호옵.”⁵²⁾

“명지바지 종시 마음의 걸니더니 무명것 입스오니 편호옵고.”⁵³⁾

“너의 잇는 누비바지가 다 명지것시오니 명지바지 참아 입기 어려워 껌바지를 썬입어스오니, 별노 누비것 또 훔 도리논 업고 얇은 쇼음 훔벌을 누비것쳐로 무명바지의 두어 껌나 호야 보내오면 마음 편히 입개습.”⁵⁴⁾

명주옷은 보내지 말고 무명옷을 보내라는 사연을 통해서 그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주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나친 호사여서 내내 마음에 걸리다가, 무명옷을 입으니 마음이 편하다는 그의 얘기는 그가 유배 생활 1년여 사이에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비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심지어 남이 없는 데서도 몸가

51)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p.40.

52) 김일근, 앞책, p.301. (제22신)

53) 앞책, p.302. (제25신)

54) 앞책, p.342. (제29신)

짐이나 행동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추사가 서간마다 의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아무리 원악지이고 삶이 구차한 제주 대정현에 위리안치의 유형을 당했을지라도, 그의 선비다운 태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의관도 항상 단정히 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선비의 참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을 수도 있다. 어느 때,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사의 선비다운, 즉 慎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에서 삶의 규칙을 실천하는 추사를 보는 것이다. 추사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蘭話 一卷에 당령스럽게도 제기를 붙여서 이번 편에 부쳐 보내드리니 받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런 일이란 것은 한 가지 잔재주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집중하여 공부하면 유가에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확실히 하는 공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도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도에 맞는다면 또 어찌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빠질까 무섭다고 경계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곧 속된 중이나 마귀의 경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⁵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난초 그리는 일을 小技, 曲藝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집중하여 공부(前心下工)>한다면 성문의 格致之學과 다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專心한다는 것 자체가 格致之學과 같은 것이며, 군자의 道는 비단 격치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건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專心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55) 「全集」卷二, 「與石坡 興宣大院君 (二)」.

蘭話一卷 妄有題記 順此寄呈 可蒙領存. 大抵此事 直一小技曲藝 其專心下工 無異聖門 格致之學. 所以君子一舉手一舉足 無往非道. 若如是 又何論於玩物之戒. 不如是 卽不過俗師魔界. 至如胸中五千卷 腕下金剛皆從此入耳.

모든 행위가 삶의 規式에 맞는, 적당한 방식에 의해 전심하여 행해질 때는 모두 道
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심을 다하는 모습은 老境의 병약한 몸인데도 서책을 곁에서 떼어 놓지 못하는
다음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감박이는 등불과 해묵은 책들이 공부를 거둘 수 없게 한다. 늙은이는 잠이 없
는지라 늘 너희들만 생각하는데, 글 읽는 소리가 황홀하게 귓가에 들리는 것 같구
나. 이 마음의 고통스러움과 상관없이 나는 옛처럼 글을 읊으며 지낸다. 위가 끝
내 깨끗하게 트이지 않고 눈병이 한결같이 더 심하여지니 걱정이야.”⁵⁶⁾

“海國圖志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 꼭 이것을 뽑아
베끼려고 하는데 空冊으로 맨 大印札 두어 권을 보내 줄 수 있을가.”⁵⁷⁾

원악지 제주의 극악한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몸은 쇠약해져 책을 보기에 도 불
편을 느낄 정도이나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하는 태도는 버리지 않는다. 전처
럼 책을 읽을 수 없어 안타까우나 그는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유배 생활
중에 아우와 제자들에게 많은 책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그가 부탁한 책의 목록
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本草綱目 52권 : 明의 이시진 편찬

御選唐宋詩醇 47권 : 淸의 고종이 선함

56) 「全集」卷二, 「與懋兒 (三)」.

青燈黃卷 能不撤課. 老人無眠 每念汝輩 讀聲悅若在耳畔. 此心良若 吾如舊吟嘯. 胃道
終不清開 眼花一以添絃 悶然.

57)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 (七)」.

海志好作近日消遣法 而眼花如此 不得如前日之看讀 可歎. 切欲抄錄 空冊之大印札兩卷
可以得送耶.

瀛奎律髓 49권 : 元의 방회가 선함
 御定文齋書畫譜 100권 : 淸의 손악분 등이 봉지찬함
 御纂周易折中 22권 : 淸의 성조가 어찬
 潑海장眞帖 8권 : 明의 萬曆 末 진원서 刻 天字文 : 梁의 주홍사가 撰함
 靈飛經 : 道經의 일종
 周易指 : 淸의 단목국호가 저술한 역서
 藝海珠塵 48책 : 不不卷
 海國圖地 : 淸의 위원 저
 岐亨詩帖 : 소동파가 황주 기정으로 귀양 가 지은 시첩
 淸愛堂石帖 4권 : 淸의 유용의 글을 돌에 새기어 法帖으로 만든 것
 十六長樂堂古器款識 4권 : 철첩이 토기를 찾아내어 그 형상을 그리고 관지를 임모하여 만든 金文圖錄⁵⁸⁾
 漢隸字原 6권 : 南宋 누기가 찬함
 晚學集 8권 : 桂馥의 저술
 大雲山房集 8권 : 惲敬의 저술
 皇淸經世文編 120권 : 賀長齡의 저술

위의 書目은 秋史舊藏書目錄과는 구별을 요하는 것으로, 추사가 제주 謫居時에 독서를 한 것들이다. 이 서책들은 金石學 및 書畫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그의 학문적인 경향을 짐작케 한다. 특이한 것은 ‘本草綱目’인데, 이는 제주인들이 부탁에 의한 것이다.⁵⁹⁾ 위의 서책의 규모로 보아 그는 9년 간의 유배 생활 동안에 한시도 학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추측되는데, 이러한 정력적인 독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일에 專心下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사가 유배생활 중에 이처럼 많은 양의 독서를 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58) 양순필, 양진건,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p.71.

59) 「全集」 卷二, 「與舍季 相喜 (六)」.
 本草等三種書 此中人聞之 又釀錢雇人 專此上送 以爲輸致之地.
 其意不可退住 茲以裁書付去 隨即堅裹以送如何如何.

유배 생활이 주는 閉鎖性에 상대하는 서적의 開放性 때문⁶⁰⁾이라 할 수 있다. 책은 외형적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아서 그 스스로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기를, 독자에게는 그의 내부에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책을 읽는 상황의 특수성이란 독자와 책 사이, 시대와 독자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서적의 개방성 및 독서 상황의 특수성은 독자 자신의 정신의 개방성을 유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추사는 유배 상황의 폐쇄성, 성리학적 이념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적이 지니는 개방성에 깊이 천착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사의 독서 행위는 그의 선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당시의 제주도의 독서인들이 중요하게 읽은 책이란 단지 通鑑과 孟子에 불과하였음⁶¹⁾에 비추어 볼 때, 독서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인에 끼친 영향을 크다고 하겠다.

추사의 선비다움은 내면적인 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에서의 절제로도 나타난다.

“강동(江洞: 동네 이름으로서 仲弟 命禧를 가리킴-필자)의 서간의 늠이 내외을 따로 내여 각당식(各鼎食)을 ㅎ자ㅎ야스오나, 방사 변통ㅎ옵논디 따로내기는 못홀 일리 업스나 아지 각당식은 부질업스을 듯 ㅎ오니, 엇지ㅎ야 이리 과별홀 말삼이 온지 드스 괴미 조짐을 보고 그리 ㅎ은 일이옵, 의스가 ㅎ출ㅎ옵, 더고나 그러쇼 록 그쳐로 버릇홀 길 업스니 방스는 옴기디 각당은 아지 부질업습.”⁶²⁾

추사가 제주에 유배 당한 후 장동 본가는 안동김씨에게 압류되어 가족들은 추사의 고향인 예산으로 솔거하여 온 바, 그 생활이 전에 비하여 몹시 궁핍하였다. 상무의 혼사를 위해서 방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아내의 심려함이 큼을 염려하는 내용의

60) 양순필, 양진건, 앞책, p.71.

61)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204.

62) 김일근, 앞책, pp.344-35. (補遺 제5신)

서간⁶³⁾이 있는데, 위 글은 혼사 후 몇 달 뒤의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은 아들 상무가 혼인 후 <내외을 따로 내여 강당식>을 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만류하는 것이다. 아들 부부가 부모와 따로 기거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를 짓는 것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나, 각정식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더고나 그쳐로 버릇홀 길>이 없다고 하고 있다. 各鼎食이란 부모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식사는 부모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 혹은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것으로, 이는 선비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추사는 생활에서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배생활에 직면하여서도 추사는 군신의 윤리는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지향적 위상의 한 요소인 보수적이며 가치 보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문학에서 美人曲類가 戀君·感君恩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듯이 그의 서간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인곡류가 청자를 직접 임금으로 하여 서정적 자아의 연군의 심정이 애절하게 표현될 수 있었으나, 추사가 쓴 글들은 서간이라는 점에서 즉, 청자가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자의 심정이 미인곡류와는 다르게 비교적 담담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는 천리를 무스이 오와 또 천리 대히을 거월 이십칠일의 하로니의 쉬이 건너 오니 무비왕녕(無非王靈)이오나.”⁶⁴⁾

수륙 2천리를 무사히 온 것, 특히 누구에게도 공포의 대상인 제주 해협을 단 하루 만에 아무 탈 없이 온 것에 대해 <무비왕녕(無非王靈)>, 즉 임금의 은혜라 생각하는 것이 추사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히 한문서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63) 앞책. p.303. (제27신)

방사을 변통호나 보오니 그스이 엇지호압습는지 생조가 배히 되어 어니 괴로 다려 오옵.

64) 앞책. p.298. (제19신)

받는 이에 따라서 내용과 어투가 달라져야 하는 서간의 성격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나는 오히려 별 탈없이 예전과 같으니 모두가 다 임금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졌을 뿐이다.”⁶⁵

위에서 보듯 유배 생활 중에 탈이 없는 것을 임금의 은혜라 하는가 하면, 자신을 유배시킨 현종으로부터, 글씨를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이를 받고는 눈물을 흘린다.⁶⁶ 뿐만 아니라 써 놓은 글씨에 대해서도 <자못 웅장하고 기이한 힘이 있어서 병중에 쓴 것 같지 않으니, 이것은 대왕의 신령스러운 힘이 미쳐와서 아마 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지, 못한 솜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⁶⁷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절정이 9년간의 유배 생활을 청산하는 放釋의 소식을 전해 준 大院君에의 답서이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보내주신 편지를 가진 심부름꾼이 임금님의 말씀을 받들어 신고 옛새만에 도착하였더군요. 집에서 보낸 소식보다도 빨라서 감격하여 읽고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으니 보통날 읽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몸에 남은 것이라면 머리 끝까지 가득찬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거늘, 어떻게 이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의 죄가 끝까지 펼쳐진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북쪽에 이

65) 「全集」卷二, 「與愍兒 (一)」.

吾尚無恙如舊年 到底是恩造耳.

66)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 (七)」.

另示一一細悉 罪通有頂 孽積如山之無狀累 豈何以得此於今日也. 只有感淚被面而已 有非語言文字 所得說到者也. 況又拙書之特紆宸眷 至於紙本之下來 龍光所被 大海神山 無不震動.

67)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 (七)」.

兩扁皆以西京古法寫得 頗有雄奇之力 不似病中所作 是爲王靈所及 似有神助 非拙陋所可能.

도깨비를 가두어 두는 것이 다행한 일일 것이라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영원토록 갇혀 있어야 하며,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고 천 년 동안을 깨어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뜻밖에 하늘같이 빛나는 임금님의 태양같은 德化가 구렁텅이의 깊은 곳에까지 비쳐서 은택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셨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앓은뱅이와 같은 모든 병신들이 소리를 같이 하여 감사함을 아뢰고, 기뻐서 堯舜 때와 같이 빛나는 정치가 크게 이룩됨을 춤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나서 태양이 천하를 비쳐서 빛나고 밝게 하는 것을 뵈게 되었으니 비록 몇 세상을 태어나서 만 번 천 번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⁶⁸⁾

열악한 환경인 제주 대정현에서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더욱 크나, 그것은 오히려 내면화 되고 자신의 죄를 면하여 준 임금의 태양 같은 은혜가 칭송되고 있다. 이 글의 문맥에서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겠으나, 추사의 보수적인 지향적 위상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慎獨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專心下工, 實踐躬行하는 선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사의 사회적 지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理性的 志向

열악한 제주 대정현에서의 유배생활에서 추사의 이성적 지향은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추사의 詩·書·畫 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정신 과정의 총체이기 때문

68) 『全集』 卷二, 「與石坡 興宣大院君 (三)」.

非非想中 崇城專星 奉齋恩教 六日適到. 先於家報 感泣驚倒 不有平日注. 存於此身者 貫徹有頂 痛壤相涉 何以得此不肖無狀之罪 戾橫極 猶幸禦魘北方 自分永劫沈淪 萬死萬惜 千年不寤 不自意 光天化日 照臨於坎窞幽陰中 霽澤傍流 暗襲跛躄 同聲竝奏 歡欣蹈舞於 堯舜舜郁之昌際. 盛時見日之光 天下文明. 雖生生世世 萬糜千粉 何以圖報萬一也.

에 스스로를 수양하는 마음이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세이다. 추사가 서도에서 강조하는 文字香이나 書卷氣란 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선대로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추사에 이르러 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추사는 어떠한 일을 하건 專心下工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聖門之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專心하는 태도가 聖門의 格致之學과 같다는 것이다. 專心下工이란 말은 부단한 자기 수련이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심하공하는 자세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 요구가 충족될 때만이 진정한 사제지간으로서 인격적인 서로 만남⁶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로 만남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격적인 해후이기 때문이다. 추사의 문하에 많은 中人 계층이 모여들고, 제주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면, 그의 제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항에서는 그 만남의 모습을 살펴 이성적 지향으로서의 참다운 스승의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古器款識 1函 3冊은 듣자니 한 번 보고 싶은 뜻이 있다고 하여 이에 아낌없이 빌려주고자 하네. 뜻을 다하여 본 다음에 편 닿는 대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鍾鼎에 새겨진 옛 銘文은 隸書가 나온 곳이니, 예서를 배우면서 이를 알지 못하면 이는 거슬러 올라 가서 근원을 잘못 찾는 것일세. 집에 모아둔 것 중에서 만약 나누어 구경할 만한 것이 있다거나 또 줄 만한 것이 있다 해도 지금은 해낼 수가 없네. 머리 센 늙은이로 귀양을 떠나 홀려 이곳에 이르렀으니 웬만큼 金石文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어 보았자 줄 사람이 없네. 차라리 좃으려고 하지도 못할 사람보다도 마땅히 자네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지. 壽琴의 便額과 瓦聯 한 벌을 보내니 역시 보고 거두어 두게.

許小癡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가. 그 사람이 매우 아름다운데 書法은 우리 나라 사람의 고루한 버릇을 모두 떨어버려서 압록강 이동에서는 것처럼 그럴 수 없을 정도일세. 다행히 宮臣의 끝에 끼어서 비호를 받는다 하니 자네 아니면 어떻게 이

69) 양순필, 양진건, 앞책, p.57.

사람을 아시게 하였겠는가. 저 역시 그것을 알 것일세. 草衣라는 스님도 역시 남쪽의 이름난 큰 스님으로 叢林 중에서 많지 않은 분일세. 지금 詩論을 보니 역시 거울이 거울을 비치듯이, 인장이 서로 맞듯이 꼭 맞네. 대단하지. 대단해.

쓰는 붓자루는 뾰뾰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쓰니 별로 꼭 좋아하는 것이 없네. 여기 한 자루 작은 붓을 보내니 받아보게. 이것의 만듬새가 지극히 좋아서 털을 가리되 다시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도 거꾸로 뾰거나 못쓰게 빠져나온 털이 없네. 아무쪼록 이에 의지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스로 쓰기도 하고 또 몇몇 자루는 나에게 보내주기 바라네.”⁷⁰⁾

위 서간은 愛弟子 申觀浩에게 쓴 것으로, 그는 무반 출신이긴 하나 문무겸비하여 병조판서, 판중추부사에 이른 사람이다. 서도를 공부하는 제자가 자신이 소장한 책을 보고자 하는데 기꺼이 응하면서 정진을 당부하고 있다. 공부에는 그 근원이 반드시 있는 것이니 그것에까지 거슬러 올라 가지 못하면 헛수고임을 말한다. 그리고, 유배된 자신의 처지로서는 자신이 소장한 귀한 금석문은 제자가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차라리 좇으려고 하지도 못할 사람보다야 마땅히 자네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데서 추사의 학문에 대한 태도와 제자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자를 아끼는 마음은 자신이 사용하던 붓을 제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좋은 붓을 보내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제자가 쓰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자신에게도 보내라는 말을 통해서 사제간의 만남을

70) 「全集」卷二, 「與申威堂 觀浩 (一)」.

古器款識一函三冊 聞有一閱底意 茲以割愛奉瓶 盡情閱過 隨便投換如何 鍾鼎古款 是隸之所從出 學隸不知此 是潮流妄源也 家儲若有分玩者 又有可以贈者 今不可致也 白首護落 流遷到此 如干金石佳品 留贈無人 寧不可欲從 當有屬之令者耳 壽琴扁瓦聯一具奉似 亦覽收 許癡尚在那中耶 其人甚佳 畫法破除東人陋習 鴨水以東 無以作矣 幸託珠履之末 深蒙厚庇 非令何以見知此人 渠亦得其所矣 草師亦南之名宿 叢林中不多有者 今見詩論 亦知其鏡鏡印合矣 甚盛甚盛 所用筆枝 無論剛柔 隨有用之 別無專嗜 茲一枝小毫送覽 此製極佳 選毫更精 無一倒毫惡尖 幸須依此多製自用 亦以若干枝 派及是望.

보는 것이다. 추사가 신관호를 아끼는 마음은 그의 다른 서간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淸愛堂筆 한 자루를 보내면서 <자네가 아니면 결단코 내주지 않을 것이니 아무쪼록 이것을 가지고 조심해서 아껴 쓰기를 祝手하고 祝手한다>고 하였다. 그 붓은 자신이 20년이나 쓴 것이나 상하지 않은 것이며, 또 그것을 얻은 인연도 石庵(劉壻)의 손자와의 학문적인 교류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⁷¹⁾

또한 위의 글은 草衣, 許小癡 등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교류의 양상은 지향적 위상의 한 측면인 사회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지향적 위상에서의 사회성은 결합적 경향과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知己와 제자들과의 관계맺음으로 표출된 것이다. 추사와 초의는 동갑으로 막역한 詩友이며 道友였다. 추사의 제주 유배시에 제주까지 찾아 오는가 하면, 때를 거르지 않고 茶를 보내주었다. 특히, 추사가 개입된 白坡와 草衣의 禪論爭에서 그들의 교류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소치는 초의의 소개로 추사의 문인이 되어 제주까지 세 차례나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았다. 소치가 出陸할 때는 신관호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제자를 돌봐 주는 추사의 사려 깊음을 알 수 있다. 추사는 소치의 그림을 <압록강 이동에서는 그처럼 그릴 수 없을 정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림이 훌륭한 까닭을 음미해 보아야 한다. 그는 소치의 화법을 우리 나라 사람의 고루한 버릇을 모두 떨어 버렸다고 하였다. 화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화법에 정통한 후에야 가능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곳에 精神的 境地가 있는 것이다. 화법대로만 그린다면 그것은 工藝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藝術品이 工藝品과 다른 것은 부단한 자기 수련 뒤에 오

71) 「全集」卷二, 「與申威堂 觀浩 (三)」.

淸愛堂筆一枝 又茲寄呈. 此是石庵舊製 曾得數三枝 巨細剛柔 無不如意. 鄙作隸楷 專用此筆 以一枝用之 二十年不敗. 割愛舉似非令斷不出 須領此若心寶用 是祝是祝. 或有坊間仿製 皆齊毫 非出於石庵家中者也. 石庵令孫 與鄙有金石交好 因緣得之耳.

는 精神的 境地와 함께 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⁷²⁾

제자에 대한 애정은 제자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유배되어 있어서 마주하고 가르칠 수 없음을 말하는 데서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漢隸字原은 진실로 좋은 책이지. 수록되어 있는 것이 309碑나 되는 많은 숫자인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漢碑는 30여 종뿐이니. 이 한예자원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다 해도 좋을 것일세. 板本 한 벌을 베껴 가게. 그런데, 이 板에서는 禮器碑 및 孔和碑와 羊寶碑 및 威伯碑가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분별하여 증명하겠는가. 婁氏의 원본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터인데 들고 돌면서 되새길 때 잘못되어 드디어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일세. 그래서 顧南原의 隸辨이라는 한 책이 도리어 이것보다 낫게 되었네. 책을 놓고 자네로 하여금 하나하나 가려내게 하고, 입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한일세. 들고 온 책 광주리가 매우 빈약해서 이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가르쳐 줄 수 없으니 특히 그 일로 속상해 탄식하고 있네. 무릇 내게 속해 있는 것이라면 끝내 마땅히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을 것일세.”⁷³⁾

漢隸字原 속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 지금은 같게 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책을 놓고 하나하나 가려내게 하고, 입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고 말한다. 유배지에 많은 책들을 가져오지 못하여 글로서는 가르쳐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나, <내게 속해 있는 것이라면 끝내 마땅히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다독거리기를 잊지 않는다. 이러한 심정에서 제자가 써 보내온 隸書帖을 보고 기꺼

72) 「全集」卷八, 「雜識」.

無訂神者 書法雖可觀 不能耐久翫. 無與會者 字體雖佳 僅稱字匠.

73) 「全集」卷二, 「與申威堂 觀浩 (三)」.

漢隸字原固好. 所收爲三百九碑之多數 今日現存漢碑 三十餘種 雖謂之淵海可也. 板本一例寫去. 禮器 孔化 與羊寶 威伯 無異 是何以辨證耶. 婁氏原本 必不如此 轉轉譌訛 遂不可識本來面目矣. 顧南原隸辨一書 反有勝於是者 恨無由一一使令一一涓定口證也. 行筮甚貧 此等可證者 未得携來 未由遠致 殊爲之咄咄. 凡屬在我者 竟當有一皆奉覽矣.

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지런하기를, 즉 전심하공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⁷⁴⁾ 어떠한 일을 성취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전진하기를 당부하는 모습에서 스승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는 제자를 등에 신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배우는 데 뜻을 두기만 하면 누구나 거두어 들였다.

“姜生은 한갓 인물만 뛰지 않을 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형편없는 풍속을 가진 시골에서는 있기 힘든 사람일세. 적막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저도 역시 아직 갈 뜻이 없고 계속 이 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난다고 하니. 먹여 살릴 방도가 심히 걱정일세. 두 그릇 밥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가장 옷 해 입는 한 가지 일이 자못 마음 쓰일 뿐이라네.”⁷⁵⁾

“여기 李時亨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이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견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담게 한다면 죽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⁷⁶⁾



74) 『全集』卷二, 「與申威堂 觀浩 (三)」.

隸帖 有出藍之喜 便覺形穢矣. 每於筆起筆收處 十分着力着神 切勿放過如何. 原紙別無另可呈評者 諒存.

75)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 (一)」.

姜生非徒所存不草草 人品絕佳 末俗之希有者也. 幸於寂寞之中 得以少慰. 伊亦姑無去意 第此留之而過冬 接濟之道 甚悶. 兩孟飯不難 而最是絲身一條路 頗關心耳.

76) 『全集』卷二, 「與懋兒 (三)」.

此邑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 其志頗銳 不可阻奪 使之上去 試與同研. 雖其見聞不廣 若使磨淬 足以傲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而去 似遲緩矣.

姜生은 제주 출신 姜奇奭 혹은 姜瑋로 추측되기 하는데, 후자로 보는 것이 문맥적 상황으로 보아 옳을 것 같다. 강위는 유배의 마지막 3년간 제주에 와서 추사와 함께 지내며, 또 북청으로 유배되었을 때도 그곳을 찾아가 지낸다. 강위의 이같은 행위를 가능케 한 것은, 추사의 학문적인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힘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구차한 유배지에서 함께 생활하겠다는 사실과 그 생활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뒤의 글에서는 스승의 모습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제주 출신 이시형을 거두어 가르치고, 그를 올려 보내어 상무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추사의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人才說」에서 <天之降才 初無南北歸賤之異>⁷⁷⁾라 하여 재주는 애초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태도가 이시형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뜻을 키워주려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추사의 유배지에서의 교육 활동을 본 閔奎浩는 그와 같은 사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짊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 같이 모여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⁷⁸⁾

謫所에서의 추사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배지에서의 분위기가 유배인을 통해 邊方水準을 높인 유배문화권의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추사는 어디에서나 가르침을 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추사는 많은 委巷人들과 교유하였으며, 그들은 추사를 따랐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추사의 태도에 힘 입은 바 컸을 것이다.

77) 「全集」卷一, 「人才說」.

天之降才 初無南北貴賤之異 其所以有成不成者何也.

이상에서 추사의 지향적 위상의 측면인 스승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추사의 제자들에게 대한 태도는 그들이 학문에 뜻을 두어 專心下工하기만 하면, 문하에 두어 전심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韓退之가 <스승은 道를 전하고 業을 주며,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⁷⁹⁾이라 하였는데, 추사는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다운 스승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다.



78) 「全集」 「阮堂金公小傳」.

居謫舍 遠近負笈者如市 纔數月人文大開 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自公始.

79) 韓退之, 「師說」.

古之學者必有師 者以所傳道受業解惑也.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사계 연원고」, 「신용준박사회갑기념논총」, 1989. p.242.

에서 재인용.

IV. 結 論

秋史가 9년간의 제주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당시의 時·僻派의 당쟁에서 기인된 것으로 安東金氏에 의해 벽파로 몰리면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추사의 영달도 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월성위의 봉사손이란 가문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추사 김정희가 1840년 9월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고 유배 생활 9년동안에 쓴 유배서간(한문서간 27통, 한글서간 21통)을 중심으로 그 서간에 나타난 位相을 연구 고찰하였다.

Busemann의 情動的 位相과 志向的 位相의 교체이론에 입각해서 형제와 아내와 자식에게 준 서간에서 정동적 위상과, 종손과 선비와 스승의 면모를 밝힌 서간에서 지향적 위상인 인간면을 분석 고찰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삼으려 한다.

1) 추사는 유배생활 동안에도 두 아우와 종형에게 쏟은 우애는 매우 각별하였다. 이러한 형제와 종형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살아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격리된 외딴 섬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추사 자신이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중 내면심리의 분리적 경향에 따른 위상에서 그리움이 우애로 강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2) 추사의 유배생활 중 아내에 대한 위상은 愛敬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통적인 유교의 사대부 사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애경심은 아내에게 보낸 서간에서 존대어의 사용으로, 아내에 대한 지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배생활 중 상처한 鰥寡孤獨의 착잡한 심정을 토로한 「配所亡妻喪」과 「夫人禮安李氏哀逝文」에서 정동적 위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내에 대한 지칭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유배생활 동안 추사가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嚴父로서의 정동적 위상을 볼 수 있다. 양자 商懋에게 가문 전래의 〈直道以行〉이라는 가훈을 지켜 이에 어긋남

이 없도록 당부한 점, 또 商戀에게 난초를 그리는 태도를 말한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근엄하면서도 자상한 엄부라 할 것이다.

4) 추사의 집안에 대한 지향은 유배생활 동안에도 한 집안의 종손으로서 제사에 대한 지성스러움과 자손을 얻은 기쁨을 말하는 데서 확연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거두는 태도로 볼 때 추사의 근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자 상무가 유배지 제주섬에 험한 해로임에도 추사를 대면하러 온다기에 조상이 중하다는 이유로 적극 만류한 것으로 보아 한 집안의 가장, 한 집안의 종손으로 가간사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집안에 대한 保存的, 志向的 位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추사는 유배생활 동안에도 專心下工의 태도를 나타냈고 그것이 聖門의 格致之學과 다를 바 없다고 하여 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유배생활을 책과 항상 가까이하고 선비로서의 慎獨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사의 專心下工하고 實踐窮行하는 지향적 위상은 불운한 유배생활을 자기 완성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유배생활 동안에 秋史體를 완성하고 歲寒圖를 남긴 것은 유배생활에서 직면한 절망, 좌절, 곤경 등을 극복한 지향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진다.

6) 추사는 유배생활 동안 유배지 환경에서 적응하려 했던 지향 중 유배지 현지 민초들의 신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사제간을 유지한 데서 理性的 志向을 나타내고 있다. 현지 민초들이 학문을 뜻을 두어 전심하는 태도만 보이면, 추사는 專心을 기울여 가르쳤다. 추사는 가르침에 제자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 사제동행으로 제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참다운 스승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런 인간다움이 추사가 委巷人과의 交遊한 志向的 位相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

7) 기존의 추사 연구에서는 그가 全人的이거나 한글을 愛重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추사가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이 평가된 선입견도 없잖다. 유배생활에 적응하려고 자신의 정동과 지향을 통해 자기인식을 다한 것과 한글서간의 수신자가 자기 아내와 며느리였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원만한 표현 수단이었을 뿐이라

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서간은 개인의 사고 형태, 생활 방식 등 개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자료라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사유 체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經學에 관한 글들 중 禮論에 연관시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미진함이 남는다. 또한 그의 서간 전체를 다루지 못한 데서 오는 한계가 있다. 그 일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參 考 文 獻

1

「阮堂先生全集」

金一根, 「諺簡의 研究」增訂版, 건국대출판부, 1988.

崔完秀 譯, 「秋史集」, 玄岩社, 1976.

임석진 외, 「哲學事典」, 중원문화, 1987.

2

김봉옥, 「濟州通史」, 제주문화, 1987.

金烈圭 外編, 「古典文學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金禹昌 編, 「藝術과 社會」, 민음사, 1979.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 민음사, 1973.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7.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세기문화사, 1982.

김 현, 「韓國文學의 位相」, 문학과 지성사, 1977.

文旋圭, 「韓國漢文學」, 이우출판사, 1979.

文淳泰, 「流配地」, 어문각, 1983.

徐基源 外, 「韓國의 知性」, 문예문고, 1972.

成樂勳,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大系」Ⅱ (上),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5.

柳宗鎬 編, 「文學藝術과 社會狀況」, 민음사, 1979.

李秉岐, 「國文學全史」, 신구문화사, 1965.

——, 「國文學概論」, 일지사, 1965.

李種恒, 「韓國政治史」, 박영사, 196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1982-1988.

鄭炳煜,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76.
 鄭玉子, 「朝鮮後期 文學思想史」, 서울대출판부, 1990.
 崔載瑞, 「文學原論」增補版, 신원도서, 1963.
 韓佑勳,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1970.
 黃滄江 外,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4.
 森 昭, 「教育人間學」,黎明書房, 1968.

3

姜周鎭,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 「耽羅文化」 6호, 1987.
 金基鉉, 「秋史散文에 나타난 夫婦像」, 「韓國古典文學研究」 4집, 1988.
 金斗種, 「李齊馬」, 「韓國의 人間像」, 신구문화사, 1965.
 金若瑟, 「金正喜」, 「人物韓國史」, 박우사, 1965.
 金英鎬, 「秋史 金正喜」, 「문학사상」 50호, 1976.
 金一根, 「秋史 金正喜의 人間面의 考察」, 「省谷論叢」 14집, 1983.
 ——, 「편지로 진단한 人間 秋史」, 「全國文化院」 10·11합집, 1986.
 ——, 「諺簡에 投影된 秋史의 人間論」, 「耽羅文化」 6호, 1987.
 ——, 「秋史 金正喜 書柬文 研究」, 「김원경박사회갑기념논총」, 1988.
 ——, 「추사 한글편지의 가치」, 「조선일보」, 1990.7.19.
 김혜숙, 「김정희의 시론 연구」, 「울산어문논집」 5집, 울산대학교, 1989.
 문기선, 「秋史 名品の 精神的 背景」, 「民族知性」, 1986. 9.
 朴京善, 「阮堂 金正喜 文學論」, 고려대석학위논문, 1980.
 徐炯搖, 「金阮堂의 哲學思想 研究」, 성균대석사학위논문, 1974.
 梁淳秘, 「流配人이 濟州文化에 끼친 影響」, 「제주도」 75호, 1979.
 ——, 「秋史의 悼亡詩와 祭文攷」, 「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0.
 ——, 「秋史의 流配書翰攷」, 「아카데미논총」 7집, 1980.
 ——,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諺簡攷」, 「語文研究」 27호, 1980.

- ,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82.
- , 「秋史의 流配漢詩攷」, 「論文集」 15집, 제주대학교, 1983.
- , 「秋史의 濟州流配諺簡 研究」, 「論文集」 16집, 제주대학교, 1983.
- , 「秋史의 文學世界: 濟州島 流配를 中心으로」, 「제주도」 80호, 1986.
- , 「文學社會學的 視覺에서의 流配文學攷」, 「김기동박사회갑기념논총」 1986.
- , 「秋史 金正喜의 學問과 藝術」, 「白鹿語文」 2, 제주대학 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87.
- 梁淳秘·梁鎮健,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梁鎮健, 「秋史 金正喜의 濟州師弟 淵源考」, 「신용준박사회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89.
- 윤석산, 「歲寒圖의 産室을 찾아서」, 「民族知性」, 1986.9.
- 李丙疇, 「阮堂先生의 經術 文章과 歲寒圖」, 동국대학교대학원, 1980.
- 陳寧寧, 「朝鮮朝 實學派 文學과 清代文化와의 關聯性에 대한 研究」,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88.
- 全海種, 「金正喜」, 「韓國의 人間像」, 신구문화사, 1965.
- 崔完秀, 「金秋史評傳」, 「新東亞」, 1976.1.
- , 「秋史實記: 그의 파란의 생애와 예술」, 「韓國의 美」 17, 중앙이리보사, 1985.
- 韓喆熙, 「阮堂 金正喜 藝術考」,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68.
- 許永煥, 「永遠한 墨香」, 능력개발사, 1978.
- 扈承喜, 「秋史 金正喜의 文學研究」,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1983.
- 황의돈, 「金正喜」, 「朝鮮名人傳」, 조선일보사, 1939.
- 藤塚隣, 「金秋史의 入燕と 翁·阮 二經師」, 「東方文化史論叢」, 京城帝大文學會編, 1935.

Abstract

**A Study on Letters of Choosa, Kim Chong-hee in his
exiled life**

Kim Bong-o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oon-phil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understand Choosa's literature entirely by probing deeply into his human nature. For this purpose, I quoted Busemann's emotional and intentional phase-replacement theory.

It is concentrated on making a study of 27 Chinese letters and 21 Korean letters, which were written when he lived alone in Cheju-do.

What I put emphasis upon in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

1) His fraternity with his brother and elder cousin when he was exiled shows emotional phase. This derived its origin from environmental factors of an isolated island and from his inner state of mind covered with hopelessness and solitude.

2) His emotional phase for his wife when he was exiled to Cheju-do, was

confirmed his love and respect. We can't find it in a traditional and noble family. But I found out this in his letters sent to his wife. He wrote the letters to his wife using honorific expressions and unique words. I could reconfirm this in a mourning poem and a funeral address which were expressed his regret over his wife's death. Especially, It is deserved more attention to use unique words for his wife.

3) His emotional phase for his children was proved to be a stern father. He said that mountains and streams couldn't break affection between father and son, even though they lived at a long distance each other. I could find his emotional phase in taking attitude toward his son's reading. And he has an intellectual and conservative phase from the viewpoint of advising his adopted son, Sang-moo to observe his family precepts "To behave oneself decently".

4) He regarded sacrificial rites as a sincerity, and he was glad to take a descendant. In this aspect, We can claim that his intention to be anxious about his family show us his distinct learning toward conservatism.

5) He struggled not to lose his moral sense of a classical scholar during his exiled life to Cheju-do. He devoted all his energies to all things. He always carried about books with him, and his action was sincere. He completed "CHOOSA-CHE; his unique style of penmanship" and "SAEHAN-DO; his painting that shows person's true value when one is in adversity" while he was exiled to Cheju-do. In view of this, We contend that he was a great scholar who acted up to his principles and that he overcome difficulties, frustrations, and despairs of his exiled life to Cheju-do.

6) He realized his rational intention by maintaining the relation of teacher and pupil. Only if the pupils devoted themselves to their studies, he taught them with all his might. Surely he was looked up to as their true preceptor.

Letters are materials showing personal aspects such as ways of thinking and

ways of lif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hoosa's letters written when he was in exile. For this purpose, I made an analysis of the phase-replacement theory, but I admit that the result has much to be desired.

